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을 걸쳐 단일민족으로서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동질적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 이를 계승해 왔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약 반세기 동안 남북한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치이념과 체제 속에서 상호 단절된 생활을 영위해 온 결과, 각기 독자적인 생활양식과 문화를 가진 이질적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화된 생활양식 등으로 인해 민족적 일체감 및 공동운명체라는 민족 감정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상호 대립과 갈등 속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되어 상호 대립적인 이념과 생활양식을 채택한 이후에 출생한 인구는 90년대 말 기준으로 남한은 78.7%, 북한은 83.5%로서 각 사회의 주도적 인구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실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세대들은 남북분단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로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통일관내지 가치관에 있어서 엄청난 간극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족 분단으로 인하여 사회문화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등 제분야에 걸친 남북간의 이질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민족분열과 상극현상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통일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명백하다.

이러한 실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점점 심화될수록 한민족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현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화해·협력과 제분야에 걸친 통합적 변동과정은 요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의 일환으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비롯한 실행체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기초 연구가 동시에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통일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고, 그 규범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청소년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는 남북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 없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성격 형성은 그 사회의 청소년정책으로부터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때, 북한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는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정책 마련에 매우 주요한 의미를 부여 할 것이다. 북한에서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은 국가적 관심의 주 대상이 되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는 총괄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남한의 청소년정책 역시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북한의 청소년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남한의 청소년정책은 북한에 비하여 그 영역과 추진기반, 그리고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각계의 참여 및 요구를 수용하는 보다 열린 운영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일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정책이 갖고 있는 유사성과 차이점은 앞으로 청소년 통일문화라고 하는 당위적 과제를 연구함에 있어 주요한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논의와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은 정치환경 및 체제이데올로기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 종속적 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남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체계, 사상교육, 정치 사회화 등에 대한 내용분석이나 실태보고, 문제점 지적 등의 규범적 평가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홍보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거나, 우리 청소년들의 우월성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편향성을 보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문화에 대한 의식과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가치관 형성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남북한의 청소년정책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바람직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을 구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문화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진정한 사회문화적인 내적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정향을 담아야 한다. 기존에 통일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보이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적·과시적 모습을 담아 이의 실행은 담보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 또한 남북한 구성원간의 융합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즉,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다분히 전략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통일문화 연구는 과거와는 달리 목적, 내용 등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차별화 되어야 한다. 통일문화 형성과정에서는 특정 계층 및 기관 주도의 일방적 형태를 벗어나 시민사회 차원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확보되어야 하며, 북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포용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적 가치 정향이 내포되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은 그동안 통일과 관련된 제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우리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 등과 같이 약화되고 있는 통일당위성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통일문제가 일부 성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던 점을 탈피하고, 체제중심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내적 통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에 따른 청소년 통일 의식과 통일 관련 청소년정책을 평가하고 북한 청소년정책의 이념, 기본방향, 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기구, 그리고 변화되는 북한 청소년의 의식 등을 고찰하여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적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통일문화의 개념 및 필요성과 이에 따른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과 기본전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에 따른 청소년들의 통일관을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정책 중에서 통일 관련 정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다. 동시에 북한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변화되는 북한 청소년의 의식 실태를 고찰하여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최근 변화되고 있는 북한 청소년정책 및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사용하였다.

1) 연구내용

(1) 통일문화와 청소년의 관계 논의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시대적 당위성을 비롯한 그 내용 구성에 관한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통일문화의 개념화를 통하여 청소년 통일문화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과 필요성을 규명하고, 시작하는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전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청소년문화 실태 고찰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의 변천 과정과 청소년 통일문화 실태를 고찰하였다. 먼저, 사회환경과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실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통일관련 청소년정책의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 1, 2차 5개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3)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청소년의 변화 실태 고찰

북한의 청소년정책은 북한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 형성은 물론,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북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특징과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북한사회와 청소년의 변화 양상을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4)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구안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청소년 통일문화 실태’와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청소년실태’ 등의 고찰 결과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통일문화의 개념화 및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본질, 그리고 북한 청소년정책 등을 고찰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그동안 통일문화의 개념화 작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념적 측면에서 통일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일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통일문화의 가치 정향을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시점에서의 통일노력과 미래의 통일 상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청소년 통일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목차 및 내용 구성, 그리고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구안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 제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대상의 원고를 의뢰하여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3)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 면접

최근의 북한 청소년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되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북한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의 불충분성과 정확성의 문제이다. 즉, 북한관련 자료의 부정확성과 시의적으로 적절치 못한 최신 자료의 부재는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각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관련 연구자가 갖고 있는 연구의 자율성과 다각적인 방법론에 기인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자료의 부재에 따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관련 연구는 비교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제와 영역으로 한정되거나, 다분히 추론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최근 변화된 북한 청소년정책 및 북한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은 현지점에서 획득 가능한 자료와 소수 탈북청소년 대상의 면접결과에 기초하였다. 이것이 북한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가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극소수 탈북자들의 면접 결과가 과연 북한 청소년들의 변화 상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가늠해 줄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면접결과 중 문헌 또는 각종의 정보매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타당도가 높은 내용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분히 우리 사회 중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역시 북한 사회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진단과 축적된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한 청소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경우, 과거에 보여왔던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로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로 제한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보다 포괄적인 수준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일문제 연구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두 사회 구성원간의 융합 및 정체성 등과 관련된 문제로 관련 지식과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현 단계에서 선부른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세부적 정책 방안 제시는 잘못된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의식과 최근 변화되고 있는 북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는 측면에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II. 통일문화와 청소년 관계의 이론적 고찰

1. 통일문화의 개념과 의의
2. 청소년 통일문화의 특성

II. 통일문화와 청소년 관계의 이론적 고찰

여기서는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시대적 당위성을 비롯한 그 내용 구성에 관한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통일문화의 개념화를 통한 청소년 통일문화의 의미를 정의한다.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과 필요성을 규명하고, 시작하는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전제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통일문화의 개념과 의의

1) 통일문화의 개념

‘통일문화’를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통합이나 국가기구의 통합과 같은 통일의 외형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민족통합의 기반이 되는 사회내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통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구상해 보는 통일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일문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5년 남북한간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문화예술을 비롯한 비정치적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학계, 문화계 내에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나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이전까지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등과 같은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한 통일의 접근방식에 집중되었거나, 남북한이 천명한 통일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외형적 논리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통일논의는 다분히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정세 및 국내의 역학적인 정치변화와 민감한 연관성을 갖음에 따라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동시에 남북한 두 사회구성원간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실태를 고려한 통일방안은 시의적으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독 이후의 사회문화적 갈등 양상이 다방면에 걸쳐 표면화되고, 이의 파급효과가 정치, 경제적 상황에까지 부정적으로 미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통일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문화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나, 통일문화의 명확한 개념과 내용, 그리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사항까지 합의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통일문화에 관한 연구나 실적이 초보적 단계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나머지 통일문화를 정치·군사에 대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여겨, 남북 대화나 국제정세에 따라 통일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논의의 시각이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통일과 관련된 내용과 방향의 편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남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북한문화의 이질화 및 저급화 현상을 강조하는데 주력해 왔다.

셋째, 현재 통일에 접근하는 가치정향은 남북한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이나 목적 설정에 대한 고려 없이 남북 교류·협력 방안 등과 같은 단기적·전술적 차원의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넷째, 통일문화 개념의 복잡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통일문화의 정의 및 연구의 초점이 다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통일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개념뿐만 아니라 통일의 접근방법, 국내외적인 정치·사회환경,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신

념과 가치체계, 그리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역량 등과 같은 제반 요인들과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시대적 정황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통일'과 '문화'라고 하는 두 개념의 복합개념으로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통일'은 '통합'과 일면 유사하게, 그리고 혼동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 역시 구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통일'과 '통합'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통일과 통합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은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을 지칭한다. 통합은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질적 요소들간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단일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길은배, 2001: 9).

보다 자세히 풀어보면,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로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상이한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다시 하나로 탄생¹⁾시키는 것이다(이상우, 1993: 55 ; 이종석, 1998: 15). 따라서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제도, 삶의 양식, 그리고 공통의 가치 정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합은 나이(Joseph S. Nye)의 정의를 빌리면,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만들거나 상호의존성을 갖게 만드는 것"(Joseph S. Nye, 1968: 858)으로 정의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합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한 정치적 과정의 제도화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1) 이상우는 통일을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모든 민족사회구성원이 하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생활공간의 통합, 경제체제의 통합, 문화통합, 의식통합, 정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를 통일로 정의한다.

서 통합은 지역 또는 기능적으로 과거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체계의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발전시키는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합은 체계가 변화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계동, 1996: 474).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통합은 '최고의 상태가 통일'인 통일 이하의 결합상태이며, 전체적인 차원이나 부분적인 차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²⁾이라고 할 수 있다(김 혁, 1997: 66-67).

따라서 가장 완성된 통합형태가 통일이며, 분야별 통합은 부분적 통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은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합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의 개념은 타일러(E. B. Tylor)가 언급했듯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complex whole)"라는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길은배, 1999: 5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사회통합을 다루는 핵심개념인 문화는 단순히 초기 인류학자 타일러가 규정한 "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관습의 총체"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규칙'으로 동태적이며, 과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문화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세계를 구성·해석하며, 또한 이 세계에 적응하는 일련의 법칙'으로서, 외부 환경과 내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고안된 세계이며

2) 이러한 통일 및 통합의 개념과는 달리 김 혁은 통일은 민족을, 통합은 국가를 분석단위로 개념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통합은 대체적으로 국가를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하는 반면, 통일은 민족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으며, 통합에는 다양한 하위체계 또는 기능의 결합현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통일은 오직 국가만이 그 대상 또는 객체로 여겨진다. 또한 통합의 주도세력은 소수의 엘리트인데 반해, 통일은 국민 또는 대중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의 목표가 '최초의 경제변영, 복리의 증진 또는 안보의 강화, 평화의 유지'로 시작된 반면 통일의 목표는 '민족의 생존과 안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출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끊임없이 고안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외부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은 바로 이 집단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문화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런 적응 도구로서의 문화는 개인, 또는 집단을 구속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통일'과 '문화'의 개별적 개념에 기초해 볼 때 '통일문화'는 한 민족의 완성된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 의식, 규범 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일정한 가치 정향적 성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통일문화의 개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치문화'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알몬드(G. A. Almond)에 의해 정치문화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래, 정치문화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알몬드는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그 나라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향의 특정한 분포이다. 정치문화는 일반적 정치체계, 체계의 투입 및 산출 국면,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상이한 종류의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의 빈도이다"(G. A. Almon & Sidney Verba, 1963: 15)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알몬드는 정치문화를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치에 대한 개인적 태도 및 정향의 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파이(Lucian W. Pye)는 정치문화를 한 정치체계의 집단적 역사의 산물이며, 동시에 체계구성원들의 생활역사의 산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개인의 태도 내지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의 역사 내지 공적인 사건들까지 정치문화의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에게 있어서 정치문화란 정치적 이데올로기, 민족정신 내지 기질, 국민의 정치적 심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가치 등과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Lucian W. Pye, 1964: 8).

반면에 비어(S. H. Beer)는 "정치문화란 사회의 일반문화의 한 면, 즉 하위문화로서 통치는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통치는 무엇을 하려고 하

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임순희, 1997: 99-100쪽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하여, 정치문화를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 봄으로써 정치문화의 분석 단위로서 문화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 수준에서가 아닌 집단 내지 전체 수준에서 정치문화의 규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알몬드와 파이는 정치문화를 개인들이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정치정향 및 태도의 관점과 같은 주로 개인적 수준에서 정치문화를 정의했다면, 비어는 정치문화를 국민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치문화는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정치적 신념의 틀과 정치세계에 대한 가정들로 이루어진 한 집단의 특성으로, 그리고 한 사회집단의 정치적인 행동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시민의 정치적인 지식과 태도의 총체 및 그 표현방식으로, 국민의 정치적 정향 내지 성향의 양상으로, 일반적으로 공유된 목표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와 타 분야의 사례를 통하여 ‘통일문화’에 대한 개념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문화는 본래적으로 다의성을 갖고 있으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구안하고자 하는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먼저, 통일문화의 개념화에 앞서 그 본질과 범주를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문화의 문화개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사용될 때, 문화의 고유 개념을 뜻하기보다는 그 문화의 상관계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대중문화’, ‘청소년문화’ 등과 같이 문화일반에 대한 하위문화를 뜻하는 것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통일문화란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정향 내지 통일지향적 가치정향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가치정향에 인지·감정·평가의 정향이 내포되어야 한다.

셋째, 그러나 통일문화의 개념을 통일지향적 가치정향으로 파악할 때, 그것이 통일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통일문화의 개념은 확실히 통일이데올로기와 동의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통일이데올로기라는 말대신에 통일문화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는 상징체계로서 작용하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문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 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해소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통일문화의 개념이 통일지향적 가치 정향을 뜻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어 질 수 있는 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①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또는 국가)의 의지와 에너지를 동원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능, ② 통일논의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능, ③ 통일을 위한 제반 노력의 내용과 성격 및 그 방향을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의 기능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에의 고려가 남북한 두 체제를 함께 포괄하는 민족현실 전체에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통일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 계층, 세대만이 공유하는 가치체계가 아니라, 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가치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특정 집단이 단기간에 걸쳐 주

도적·조작적으로 형성할 수 있거나, 강제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내·외연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장기적 노력을 통하여 형성 가능한 개념이라 하겠다.

2) 통일문화 형성의 시대적 의의

현시점에서 새로운 통일문화의 형성은 과거에 이념적, 체제적 접근과 통일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던 통일논의의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경제, 사회문화, 정보 등과 같은 새로운 요인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변화의 축과 맥락을 같이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통일논의는 과거의 폐쇄적·일방적 형태를 벗어나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적 환경을 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분야는 시대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환경은 연구의 관심도와 시각을 규정하고 나아가서 연구 결과의 량과 질까지도 제한해 왔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의 진지한 접근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 논의 연구의 성숙된 전개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민감성에 기인하는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통일논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환경적 제약은 대체로 현실정치의 요구와 통일의 당위적 명제와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정치의 요구는 현존하는 정치체제의 합리화 내지 정당성에 기여하는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간주되는데 반하여 통일은 본질적으로 현상유지가 아닌 현상타파의 명제가 전제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본적 인식의 갈등에서 환경적 제약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실 정치의 요구와 통일의 당위를 양립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일에의 접근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인식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가 잔존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형식 논리면에서 통일의 당위와 현실정치의 요구 사이에 양립하기 어려운 속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냉전적 분단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정치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연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현실의 정치를 비롯한 제도·교육 등 모든 문제가 통일문제와의 관련에서 합리화되고 또 동원되는 사례를 자주 보아 왔다. 통일에의 진지한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종래의 인식과 태도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정치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통일인식을 극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은 궁극적으로 현실의 요구와 통일의 당위적 명제를 양립시키는 일종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새로운 통일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의 시대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통일논의의 이분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던 반공, 통치이데올로기만으로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정치, 사회환경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담아낼 수 없으므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내용과 방향성을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특정 계층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통일논의는 광범위한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속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사회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과거 정치·군사적 측면에 편중되었던 통일의 접근방식을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변곡점을 형성해 준다. 즉, 통일의 접근방식이 외형적, 제도적 차원에 머물렀던 인식을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다분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전이·확대시킬 수 있다.

넷째, 남북한간의 대립·경쟁을 극복하고 조화점을 찾음으로써 통일이전의 남북한 체제가 지향해야 할 이념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즉, 남한과 북한의 기존체제 하에서 나타났던 상극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함으로써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줌으로써 전체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남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계층, 직업, 성별, 세대, 지역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통일문화 유형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은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딱딱하고 특정 사람들만의 점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한 부분적 형태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동안 통일문제는 거대 담론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바, 이것은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하나의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권력을 갖고 있는 특정 계층만의 점유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문제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담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조급한 당위적 책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서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준비단계부터 시작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2. 청소년 통일문화의 특성

1)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과 필요성

통일문화의 개념화에 기초한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행동양식’에 바탕하여, 이러한 성향을 남북한 사회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과정’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문화체계인 동시에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적 문화 해소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 정향을 갖는다.

둘째, ‘규범’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의 규범적 문화체계인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산하고 남북한 문화의 공동 기반을 확인·확산시켜 나가는 청소년 통일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분단에 의해 왜곡된 문화구조의 극복을 현재적 과제로 삼되, 이를 분단현실의 틀 안에서만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소년 통일문화의 창조라는 미래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통적’인 것과 ‘발전적’인 것, ‘특수성’과 ‘보편성’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잔존하는 동질성을 확대·발전시키는 것과, 특정 계층 및 지역 청소년의 가치 정향을 넘어서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막연히 미래의 통일 주역이라는 당위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부터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형성과정에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을 말한다. 또한, 남과 북을 이질적인 이분법적 시각에서 재단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에 기초하여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일정한 시각과 정향을 갖는 세력화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 의식이 문화의 형태로 발전될 경우에 개별적·소집단적 행동과 의식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대체로 우리 사회의 기저에 형성되어 있는 통일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당위적 사실로 받아 들여왔지만, 한국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은 차츰 약화되고 있으며,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현 상태로 만족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통일무용론'과 '통일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층인 10-20대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당위성과 절실함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무용론'과 '통일회의론'은 동·서독의 경험에서 크게 영향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 의식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은 이러한 기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정부 및 시민단체, 그리고 성인들이 청소년 중심의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청소년 통일문화는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없음과 동시에 강제적 성격을 띠어서는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필

요할 것이나, 어느 정도의 환경이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후원될 필요성이 있다. 한 개인의 의식, 가치관 등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획일적 개성을 빚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상징하는 청소년 통일문화는 북한이라는 대상이 존재함에 따라 획일적 가치관보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간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칫 새롭게 시작되는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 과정이 모범담안이 존재하는 획일적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전제

청소년 통일문화를 바람직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현재의 단계부터 정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실행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정치·군사적 환경에 의하여 그 접근 시각이나 도출해 내야만 하는 결과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것은 통일문제라고 하는 본래적 속성이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맥락을 유지해야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기본 원칙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어 진행되는 것에도 부분적 원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그동안 통일문제는 북한이라는 폐쇄적·통제적 사회에 대한 정확한 관련 자료가 미미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당위적 목표를 설정한 후에 사건이나 환경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그 과정을 수정해 가는 졸속적·미시적 접근 방법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므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환경에 대한 진단, 비교적 관점의

남북한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그리고 그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미래지향적 목표 등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종합적 고려 없이 단기적·선전적 결과에 치중하여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에 그동안 많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통일과 관련된 문제의 반복적 악순환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전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일상생활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문화의 내용과 가치 정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통일관련 정책수립 및 제논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일정 부분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은 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향후 통일시대의 주도적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몫이기도 하다.

셋째, 현재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적·이질적 요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가치 정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이 목표에 맞게 청소년 통일문화상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Ⅲ.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청소년 통일문화 실태

Ⅲ

1.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청소년 통일문화
2. 청소년정책의 실적과 평가: 통일관련 정책 중심
3.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사점

III.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청소년 통일문화 실태

본 장에서는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과 청소년 통일문화 실태를 고찰하여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이를 위해 사회 변화와 청소년정책의 변천에 따른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실태를 진단한다. 그리고 통일관련 청소년정책의 실적과 평가를 위해 「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 1, 2차 5개년 계획」 등을 살펴본다.

1.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청소년 통일문화

1)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청소년 환경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은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변화,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을 보는 시각의 제한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청소년 정책을 개괄하면서 시기적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변화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먼저 전제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정책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각 국가가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자신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다. 특히 정보화와 전지구화의 거센 파고가 전세계를 휘감고 있는 조건에서 청소년 세대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불안한 존재로 자리매김 되게 된다. 그들은 미래를 살아갈 것이지만 그 미래가 불확정적인 데서 오는 존재적 불안감에 포박되어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수반하는 불안감은 어떤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존재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경쟁의 극한으로 치달아 가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망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측면 외에도 청소년 문제가 사회 의제화 되면서 기존의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인식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의 경우 청소년의 주체 형성 과정이 한국 사회의 전망과 연결된다는 것에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의 경우 지정학적 위상과 부존자원의 빈약 등의 요인은 인적 자원에 의존한 발전 전략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대간 단절의 문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매년 수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은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시민'으로 전환시킬 사회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³⁾.

하지만 '청소년 정책의' 역사는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을 받게 된

3) 청소년 정책의 큰 줄기는 '보호'와 '육성'이다. 사실 보호와 육성은 서로 대치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닐뿐더러 청소년 정책을 근거짓고 있는 전제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시점은 1960년대 이후의 시점이다. 이 당시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내지는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등장하는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중·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던 학생 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 저항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였다. 청소년 정책이 맥락화 되는 시점은 바로 이러한 청년 운동의 활성화라는 조건에 직면하면서이다. 정부는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청년 운동과 구별짓는 의미에서 청소년 활동을 조직화하고 정책화하였다. 말하자면 청년 세대와 대조적으로 사회에 대한 별 다른 저항 없이 순응하는 어린 학생을 청소년이라고 개념화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은 거의 없었고, 주로 산발적이며 단기적인 규제들이 이루어져 오다가 1987년에 이르러서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인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한 해 뒤인 1988년 정부의 중앙 부처에 청소년국이 마련됨과 동시에 각 시와 도에 청소년과가 생기게 되면서 중앙 수도권 지역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청소년 정책의 전달 및 집행 체계가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0년에는 체육청소년부가 신설되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청소년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 종합 계획인 「청소년기본계획」(1991. 6. 27)이 시행되었다.

「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 정책 수립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같은 해 말 「청소년기본법」(1991. 12. 31)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1993년에는 1990년에 신설되어 그 때 까지 청소년 정책

의 수립과 집행 등에 관련된 사업에서 중앙의 역할을 해 오던 체육청소년부가 문화부와 통합되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되었고, 그에 따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정책실에서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9월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1997년 7월, 문화체육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로부터 한 해 다음인 1998년 2월 지금의 문화관광부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7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청소년을 미래 시대를 살아 갈 주인공이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 청소년의 현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정책의 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이 시행된 시점은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이 시행된 시점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본다면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정책이 시행된 역사는 불과 10여년 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그간의 성과들이 적지 않지만, 그 성과만큼 그 한계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한계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표 III-1>은 문화개혁시민연대에서 정리한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III-1> 청소년관련법 비교

내 용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일자	○91년 12월 제정 ○99년 1. 18까지 5차례 개정	○97년 7월 제정 ○99년 7월 1차 개정
제정 목적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 장소, 물건으로부터 보호
제정 이념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 확립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주요 내용	○청소년기본계획수립 ○청소년육성정책 마련	○유해매체·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 사용규제
설치기관 및 부서	○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고시 내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2차 심의조정 기능 ○청소년 유해매체 격리, 포장, 유통제한
운영의 문제점	○피상적이다 ○법의 실효성이 없다 ○청소년 단체들의 권력 강화 우려	○청소년들의 행동을 규제·통제로 일관하여 실제로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상태
청소년 연령	○9세-24세	○19세 미만

※ 자료 : 이동연, 청소년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들(<http://www.kpaf.org>)에서 참조

1991년에 12월에 제정되어 1999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의 과정을 거친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그 법적 성격을 논하자면 ‘육성 정책’이라고 분류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해서 1997년 7월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규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보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기본법」과는 그 제정 목적이 약간 다르다. 「청소년기본법」이 일반적인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보여주고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기본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제정 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의 필요성과 규제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제정 이념에서 상당히 다르면서도 유사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그 제정 이념을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 확립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함은 물론이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 이념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어떤 상황을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 및 규정하고 그에 대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대안적인 일련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성인의 몫이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 법들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청소년은 정책의 대상이었을 뿐 청소년 자신의 활동을 개념화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부재했다. 그 결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그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98년도에 제정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청소년들에게 자율과 선택, 혹은 판단의 기회를 철저히 막아두고 있었던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기는 한다. 여기서 청소년 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청소년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정책은 커다란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것은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함축한다.

- 미래의 주인공으로 권리 유보 ➡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권익 증진
- 성인주도·정책대상의 청소년 ➡ 청소년참여·정책주체로의 청소년
- 소수 문제청소년의 지도·보호 ➡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
- 공급자·시설위주의 양적 성장 ➡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 중앙 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 ➡ 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하지만 청소년 정책은 형식적인 담론의 차원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지만, 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⁴⁾. 이것은 정책 내용의 한계와 세부 실행 지침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청소년 의식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는 청소년 자신들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두발제한반대운동을 대표로 하는 청소년 자신들의 운동은 이와 관련이 있는 청소년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다소 부각시켰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웹진이 활성화되면서 크게 성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 의제화 하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4)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것을 구체화하면 정부 기관 내에 '청소년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한 참여, 그리고 프로그램 공모와 같은 제도를 통한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2)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통일관

(1)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

이와 같은 청소년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조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청소년들은 1980년대의 청소년이 아니고 사회적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특히 정보화의 파고 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겪어내는 사회 내 존재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소비·상업주의화 과정은 학교와 학교 밖의 차이를 극명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치관에서 보면 '일탈적'인 행동들도 매일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기성세대와의 구별짓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어른들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다. 세대간 단절은 심각하게 진전되어 부모-자식, 선생-학생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0대의 정체성은 흔히 '신세대' 혹은 'N세대' 등의 통칭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층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청소년이 세대 정체성(어른들과 구분되는 자신 세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같은 세대 내에서의 차이로 규정되는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 분할 효과를 생산하는 계급, 성, 취향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른 분할도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세대 정체성을 통칭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왜 그들이 "자신만의 색깔내기"에 몰두하는지, 또래 사이에서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욕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정보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역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은 정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나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청소년의 통일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체성 변화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최근 남북문제의 ‘쟁점화’ 과정에서 청소년 교류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한국청소년학회 주최로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움이 열린 바 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NGOs의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의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들에서도 청소년 교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의와 협의를 청소년 활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세대 논의 이후 기존의 패러다임이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어른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것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통일 문제에 관해 청소년 자신의 주체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청소년이 통일 시대의 주역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청소년 중에는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층이 상당수에 이른다.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말해져 왔지만, 통일 문제는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가끔 그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과 이야기할 때 통일은 자신의 문제는 아닌⁵⁾ 것이다(길은배 외, 2000: 32쪽).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성 세대도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지, 남북방송이 합작해서 제작

5) 한 통계치를 보면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7.3%,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응답이 48.6%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의 79.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이우영, 2001: 2쪽)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기성 세대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지만 민족적 과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려고 한다.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성세대로 하여금 젊은 세대에게 민족사적 책무를 '계몽'하기 위한 여러 시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식의 단언, 그렇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 프로젝트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소통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두발제한에 대한 문제제기,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온라인 시위 등의 움직임은 더 이상 청소년이 국가나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국면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온 질서는 청소년에게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성세대부터 '민족사적 책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일 수 있다. 기성세대가 민족사적 책무로부터 벗어날 때 청소년의 존재가 보일 것이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질 것이다. 기성 세대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통일'의 상, 기성 세대의 입장에서 설정되는 '기준'으로 청소년과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시작하는 원칙일 수 있다.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젊은 세대의 삶에 준거하지 못하는 이야기,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통일의 문제설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통일관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혼란'을 치유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잠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는 충분히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껏 통일이 내게 의미하는 바를 따져보지 못한 채 통일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해 오지 않았던 것은 통일이 구체적인 문제로 자리잡지 못하는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과제라고 말해져 왔지만 그것은 자신과 연관을 맺지 않은 채 존재하는 과제였던 셈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이런 모습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통일 문제를 민족적 과제로 위치 짓지 않고 자신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권이중, 2000. 9).

다음은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 대의 청소년들이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전후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난 한 3일이면 한 72시간 같이 있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말도 안돼...(finisher,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www.haja.net에서 인용).

빨리 통일이 되어서 군대에 안갔으면 좋겠다.. 군대에 끌려가기 너무나 싫다. 나의 하얀 피부와 약한 다리가 견뎌내지 못할거야(nevada51, <오호, 화해무드라...>, www.haja.net에서 인용).

"분명 통일이 올 것이다. 서로가 손잡고 같이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기대해요. 그날을.. 우리 통일 일세대"[퍼온 글]. 닭살이당(레몬엔젤, <남북정상회담을 향하여 귀엽게 귀엽게>, www.haja.net에서 인용).

글구 그 뭐냐.. 북한 방송때시 허준하고 TV의 모든 것 못봐서 더 열받았다(짱이짱이야, <듣고 보니까>, www.haja.net에서 인용).

솔직히 말해서 정상회담 같은 건 신경도 안쓴다. 하는지도 몰랐다. 관심

-
- 6) 통계적 방법이 현실의 감각을 충분히 나타내주지는 않지만 연령에 따라 통일에 부정적인 추세는 뚜렷하게 확인된다.

도 없다. 하던 말던. 애기가 잘되던 말던. 뭐 아줌마들이 나와서 울고. 웬 청승이며 가식인지.. 난 우리나라라는 것 얼마 전까지 무지무지 싫어 했는데. 지금도 나중에 크면 이민가서 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진이, <난 좀 싸가지가 없긴 하지만>, www.haja.net에서 인용).

청소년들이 게시판에 쓰는 글들은 사실 자신의 현재의 삶, 현재의 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적어도 일부 청소년들에게 기성사회의 통일 논의는 그들의 삶과 연관되지 못한 것이다⁷⁾. 이러한 반응은 기성세대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기성 세대의 통일 논의가 서로 간의 불신과 적대를 계속 재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에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이 어떤 희망의 계기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산가족의 만남에서 어떤 기억을 건져올릴 수 있는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 북한은 하나의 외국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증오의 감정도 없지만 특별한 애정의 대상도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통일에 관해서 중요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을 단순히 강화하는 계기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남북관계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 자체가 의미하는 바 자체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 최근 청소년과 대화해 본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라는 의미와 ‘공존’이라는 의미 사이의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다. 민족이 하나된다는 식의 관념보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7) 물론 기존의 통일담론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이런 청소년들을 핑계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위기의 징후는 있는데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⁸⁾. 이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분할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청소년정책의 실적과 평가 : 통일 관련 정책 중심

1) 청소년정책에 나타난 통일 관련 정책 분석

사실 청소년 정책 속에서 통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이다. 왜냐하면 통일 관련 청소년 정책은 정책의 줄기에서 극히 일부 분이었을 뿐더러 이러한 정책이 가시화될 무렵의 정치적 상황이나 통일관의 영향 하에 직접적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 중에서 통일 관련 정책이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추상적 필요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정책 내에서 통일 관련 문제의식이 독자적으로 자리잡은 경험 자체가 부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이라는 존재적 특성이 고려되면서 통일관련 정책이 입안되거나 추진된 경험 자체가 없다.

하지만 시기별 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정부나 민간에서 청소년 통일 관련 정책이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상당수 있으며,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통일 시대에 대비한 '공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이전의 청소년 통일 관련 정책이나 연구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방향 제시나 큰 틀의 방향 제시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권이중,

8) 문제는 기존의 '통일'이라는 의미 속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강한 의미의 통일 관념은 10대들이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2000). 이에 비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제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데 합의하였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남북 사이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확산시켰다.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그에 따른 부침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현실은 이런 일반적 특성에서 상당 기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 추이는 냉전을 넘어서고 있고 공존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세계사적인 흐름은 더 이상 냉전의 가치로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 내에 자리잡아 온 통일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사실 청소년 정책 자체가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 시점에 이르러 국가가 청소년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정책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본 골격을 살펴 볼 필요는 있다. 특히 통일 관련 정책에서 1990년대 들어서 만들어진 「청소년기본계획」에서 남북한의 청소년 교류라는 문제의식이 자리잡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계획」은 국민 의식과 사회 환경 개선, 청소년 스스로의 자질 개발과 심신 단련이 가능한 청소년 활동 보장, 청소년 복지 환경 개선, 국제 교류 및 통일 조국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청소년 정책 수립 등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 삶을 개척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며 청소년 건전 육성 관련 사업의 기준을 제시한다. 「청소년기본계획」은 크게 다음의 5대 부문으로 작성되었다(박명운, 1996: 44).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삶을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 활동 부문
- 청소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주는 청소년 복지 부문
-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 고양과 통일 조국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 교류 부문
-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적 국민 일반 관념의 전환을 위한 법제 보강 부문
-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청소년 재정 확충 부문

이와 같은 영역에서 「청소년기본계획」의 중점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박명운, 1996: 44).

- ① 청소년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② 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들의 성장 요람 조성
- ③ 선진·민주·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함양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하여 살펴 볼 부분은 「청소년기본계획」의 중점 목표 중의 한 가지인 “선진·민주·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함양”과 관련하여 “청소년 교류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일 것이다.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 교류 부문은 정보화, 국제화로 대표되는 범세계적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때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에서 청소년 국제 교류의 중요성과 그 시대적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국가 간 상호 이해, 조화와 합일의 국제화 사회의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국 청소년의 초청과 다양한 해외 파견의 기회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이념 체계와 단절된 생활로 인하여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언어와 습관 등의

많은 면에서 이질화된 분단 상황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상호 신뢰와 화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영원인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몇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통일 관련 청소년 정책 부분에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는 입장과 맥락이 국제 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도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청소년 교류가 가지는 의의와 역할,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수행 해 낼 수 있는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본계획」이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해 온 남북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이 고유의 영역을 가진 부분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한계로도 나타나 있다.

<표 III-2> 통일 논의에 대한 불만 사항

	빈 도	비 율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80	20.0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361	40.0
실행 가능성이 너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	171	19.0
남·북한을 적대 관계 혹은 대립 관계로만 생각한다	54	6.0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	105	11.6
기 타	31	3.4

※ 자료 : 김은배 외, 2000: 83쪽.

이 설문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것인데, 설문 결과에서도 통일 논의가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20.0%에 이르고 있고,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 역시 4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실증적 조사의 결과는 실제로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협력이 별다른 성과나 실적을 남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었지만, 청소년들 자신이 피부로 느끼는 의미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통일 관련 정책은 성인 중심, 국가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어 별다른 의미를 띠지 못한 채 존재해 왔던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북한이라는 존재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추상적인 호기심의 대상 이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청소년 문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은 「청소년기본계획」의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던 추진 방안의 일부 내용들이다(박명운, 1996: 55).

- ① 남북 쌍방 청소년 담당자간의 교류를 위한 단계적 접촉 시도
- ② 쌍방이 개최하는 청소년 행사에 상호 초청
- ③ 청소년 단체 활동 공동 참여 및 단체간 자매 결연
- ④ 남북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 어울놀이 개최
- ⑤ 통일 청소년 대행진
- ⑥ 청소년 학습 여행단 상호 방문 등의 행사 추진
- ⑦ 공동 탐사 사업 전개
- ⑧ 남북 청소년 만남의 광장 설치

이처럼 다양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추진 방안이나 정책적 차원의 노력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의 미흡함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실제적인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점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청소년 교류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정치적 교류로 분류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일부 대학생들간의 교류를 제외하면 사회문화 분야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청소년 분야의 교류는 추진 실적 면에서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회문화적 접근⁹⁾ 자체가 정치적 접근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국가 안보의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창구를 제한했고, 그 창구조차도 정치적 상황 변동 논리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에서 약간이라도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나, 또는 남북사이에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교류와 협력은 그것을 빌미로 연기되거나 혹은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분야는 물론이고,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이끌어 가는 독립적인 접근 방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적·군사적 관계에 의해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받을 수밖에 없는 종속 변수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길은배 외, 2000: 2).

둘째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혹은 협력과 관계된 제의들은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나 가능할 법한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의들의 성사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남한

9)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말은 사회문화 교류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의미를 가진다. 말하자면 어느 한 사회의 기준으로 남북을 동일화 한다는 문제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설정에 가깝다. 즉 남과 북의 사회적 격차,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 삶을 구성하는 환경과 복지 문제, 나아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문제의식이다. 이에 비해 사회문화 교류는 주로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촉·교류·협력을 지시한다(전효관, 2000: 5-7쪽 참조).

과 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형태도 지속적이거나 장기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성을 그 바탕으로 두거나 혹은 정치적인 선전성을 더욱 우선시한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남한과 북한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동은 당연히 제약이 가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통일 문제가 이념의 문제와 단절되지 않고 다루어지는 한 민간의 자율적인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남북 사이의 여러 제안들은 실제로 이니셔티브 경쟁과 관련되어 제기된 것이 많다.

셋째로 남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지녔던 본질적 혹은 구조적인 한계로 다른 측면에서 지적되는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안의 정치적인 상황은 남한과 북한간의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크게 제약하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과거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체제와 반체제 즉, 민주와 반민주주의 투쟁과 갈등의 구도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권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대중적 수준에서도 북한에 대한 진지한 이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제약 이외에 청소년 교류를 제약한 원인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아이와 어른 즉, 미성년과 성년의 중간적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청소년이라는 집단을 미성숙한 시민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남한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에서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에 따라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에 접하는 것을 금기시 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교류 중에서도 청소년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극히 미진한 것은 남한의 사회와는 많은 면에서 대비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이념과 사상 등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면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관념이 교류와 협력에 일정한 장애를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은 기존의 이념에서 벗어나서 자란 세대이고, 그런 만큼 상대의 문화와 공존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특히 남북한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이념 대립이 사회문화적 교류에서 작용하는 역기능을 생각하면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전향적 인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기존 관념은 청소년 교류를 어른이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의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청소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기획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 남북 청소년 교류의 문제는 국제 교류와는 대단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이 제기되는 교류 문제는 설사 성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남과 북의 관계는 대단히 특수한 맥락에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외국 사람과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교류라는 패러다임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즉 국제 교류의 틀로 북한 사회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사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류가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은 훨씬 더 신중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처럼 적대적 상호인식과 배타적 무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교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나 정보 교환 등의 과정

10) 이와 같은 점은 독일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통일의 통일 과정에서는 활발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이 통일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서독과 동독 사이의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수학여행을 통한 상대 사회의 이해 과정 등이 실시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청소년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없이 성과를 갖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청소년 정책의 통일관련 내용 중에서 ‘공존’, ‘다양성’, ‘이해’, ‘평화’와 같은 미래적 가치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통일과 관련된 실천에 있어서도 ‘일상과 분단’, ‘나와 분단’, ‘관계맺기’ 등의 새로운 영역 설정 자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청소년 정책은 과거의 전통, 즉 분단 사회의 논리에 정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 기반하여 청소년 통일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정책의 이행 실적과 평가

(1) 청소년 교류의 실적과 의미

앞에서 청소년 정책중 통일관련 정책의 이행 실적이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그 의미가 크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과 통일 문제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북 청소년 교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필요는 있다.

남북 청소년 교류 현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황 추이를 보면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얻을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교류는 분단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남북 교류는 1970년대의 정치적 제안의 성격을 제외하면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청소년 교류 차원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 방안 등을 둘러싸고 대학생 층에서 분단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0년대 초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분단 문제라는 좀더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운동이 활성화된다. 1960년대의 통일 운동은 그 외양이 낭만적인 모습을 띠었다고 하지만 문

제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철부지 행동으로 치부될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러한 움직임조차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지되고 사실상 남북 사이의 교류 문제는 제기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온 것은 1980년대 중, 후반에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역사 인식의 전환, 특히 근대사 인식에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민족사학, 민중사학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던 역사 재인식 노력은 분단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1980년대 후반 대학가는 통일 운동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통일 문제가 남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대학생 중심의 통일 운동은 그 주체의 측면에서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될 수도 있지만, 지금 논의하는 남북 사이의 청소년 교류와는 그 궤적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역사적으로 남북 사이에 냉전 구조가 그 한계를 보이면서 이 운동은 사회적 지평과 담론적 영역을 확장시켰다. 실제로 남한 대학생들의 탈법적인 북한 방문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탈법을 감행하면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징후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가 갖는 감수성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에 대한 재인식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인식이 사회적으로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진전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운동의 일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통일 운동과 북한 바로알기 운동은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적인 계기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정부와의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 추진된 1980년대 말의 통일 운동은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동포'로 볼 수 있는 인식 전환을 사회적으로 초래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다루는 사회문화적 교류라는 차원에 있기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통일 논의가 정치적·이념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남한 사회의 이념적 지형 속에서 이 운동들이 지니는 의미가 결코 작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사이의 일반적 교류는 1990년대 들어서 질적인 단절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교류나 청소년 통일 정책의 문제도 좀더 명확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은 앞서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당시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시도되던 새로운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냉전 체제의 붕괴, 남북 사이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 이와 관계가 있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이 어울어진 측면이 있다. 북한을 과거와 같이 적대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남과 북 사이의 공존과 화해·협력이라는 맥락보다는 경제력 우위로 인한 유화적인 정책 여지가 넓어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우위에 입각한 유연화는 철저하게 남한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고, 분단이 가져온 심적 거리감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결과로 남한 사회의 대북 인식의 변화가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닐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가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성사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대별 진행 추이는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¹¹⁾. 남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경제협력의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1990년도에 북한주민 신청 건수가 235건에 불과했지만 1999년에는 7572건에 이르게 되고, 특히 1997년부터는 질적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난다(길은배, 1999: 106). 이러한 양적인 증가는 실제 방문 건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1998년부터는 북한 방문이 특

11) 남북관계는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정치가 쟁점이 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러한 현상에서 보듯 남북관계가 완전히 다른 지평에 서는 것은 아니다.

별한 경우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화시켰다. 이러한 접촉 건수와 방문 건수의 양적인 증가는 일단 남북관계가 변화를 잉태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기간 동안 실제 교류의 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접촉 건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3>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

단위: 건/(명)

분 야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이산가족	13918 (14450)	13833 (14365)	1 (1)	-	84 (84)	1852 (2133)
경 제	3356 (8389)	3246 (8109)	76 (210)	6 (15)	27 (54)	1712 (2874)
교육학술	479 (3623)	440 (3004)	35 (311)	3 (306)	1 (2)	153 (1974)
문화예술	328 (1464)	282 (1373)	45 (90)	-	1 (1)	93 (737)
체 육	189 (905)	179 (865)	6 (23)	3 (11)	1 (6)	58 (518)
종 교	329 (1596)	276 (1450)	53 (141)	- (5)	-	114 (875)
언론출판	265 (692)	223 (592)	38 (90)	1 (7)	3 (3)	54 (147)
관광실무	166 (524)	158 (496)	8 (28)	-	-	47 (145)
교통통신	60 (198)	60 (198)	-	-	-	33 (119)
과학환경	198 (791)	187 (773)	9 (13)	1 (4)	1 (1)	44 (284)
대북지원	39 (169)	39 (166)	- (2)	- (1)	-	37 (128)
기 타	335 (1565)	255 (1355)	77 (203)	2 (4)	1 (3)	86 (952)
계	19662 (34366)	19178 (32746)	348 (1112)	16 (353)	118 (148)	4283 (10886)

※ 자료: 길은배, 1999: 107.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접촉은 일반적으로 이산가족의 경우와 경제 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93건으로 나타난다. 특히 남북한 접촉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교류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분야별 교류 정도를 양적인 의미에서만 파악할 필요는 없다. 시민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그 양적인 비중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문화적 교류는 경제 교류나 이산가족 방문 등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라는 교류 자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의 범주는 크게 사회문화적 교류, 인도적 교류, 그리고 대학생 교류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 활동 중에서 청소년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별반 없다. 그것은 통일 정책에서 청소년이 주도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다만 주체나 참가 구성원이 청소년인 경우가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경우나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의 경우, 그리고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의 경우가 약간의 관련이 있다(길은배, 1999: 110).

오히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청소년 교류가 아니라 내용적인 진전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북한의 식량 위기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 아동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중에서도 '남북어린이어깨동무'와 같이 어린이 교류를 통해 통일에 대한 상을 다시 만들어가려는 민간 활동 등이 특히 주목을 끈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남북 어린이의 그림을 교환하는 활동이라든지, 북한 어린이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그 간의 이념적 통일 운동과는 차별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전과는 달리 '공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과 같은 실제적 활동을 벌이는 경우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문화적 접근 논리에 따른 남북 사이의 교류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대학교와 대학생 중심의 교류 활동 제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한총련 중심의 이념적 통일 운동과는 달리 학술 교류와 교환 프로그램 차원의 제안이 적지 않았다. 물론 이 중에서 성사된 경우는 많지 않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통일교 주도로 북경에서 북한 대학생과의 교류가 성사되어 주제발표 등을 통한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류에서 남북 대학생들이 뜨거운 감격을 안고 돌아오고 남과 북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일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교 내에서 남북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기 위해 '북한영화제'를 연다든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드는 작은 모임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계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개최된 '95북경 동아시아 청소년 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과 북한의 사로청국제부장이 비공식 접촉을 갖고 청소년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한 일이 있다(길은배, 1999: 115). 이외에도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제기한 청소년지도사들의 북한 방문 제안이나 대학 간 교류 제안이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청소년 교류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적이지만 좀더 확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동아리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고민도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청소년 단체 외에 시민단체 내에 존재하는 10대 모임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악화되고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화해·협력 정책이 안정화되면서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교류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움직임은 그 동안의 적대적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남북정상의 만남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과 북 사이의 협력 관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북 사이의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 그 교류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과 북 사이에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 교류라는 문제설정에 대한 평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과정이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에 꼭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류가 추진될수록 남한에서 승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은 ‘불쌍한’ 대상이 되어 도와줘야 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고, 남북의 관계 진전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식의 단순한 실리적 계산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의 반공주의에 기반하여 북한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상대에 대해 선입관을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와 교류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또한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실제적인 교류의 욕구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례로 북한을 방문하면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서 금강산(37%), 백두산(34%), 평양(11%)라는 조사 결과는 실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초보적인 지리 교과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권이중, 2000: 21). 예를 들어 김일성 대학교, 옥류관, 기타 학교

12) 특히 문화계 인사들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서 다수의 기행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기행문들은 북한을 대상화하는 시선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과 북의 비교나 북한을 묘사하는 시선에서 남한 중심적 시각이 두드러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등과 같은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욕구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비슷한 것은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북한 영화나 공연 등에 대한 시청이나 관람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 두번 보았다(56.3%), 보지 못했다(22.3%), 볼 필요가 없다(5.4%)로 나타났다(권이종, 2000: 20). 말하자면 북한 문화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물에 대한 시청율이 상당히 낮으며, 특히 청소년층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조차도 없는 현실에서 북한 문화나 사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와 연관되어 주목해야 할 것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창구 자체가 신문과 방송이라는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신문, 방송이 82.6%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말하자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북한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정보 자체가 한정적이며, 그 정보 자체도 수동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정보의 양도 적지만, 그 정보 자체가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매체들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소재 혹은 정쟁의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격차를 생산하는 기존 언론의 관행으로 미루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북 청소년 교류 문제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말하자면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는 일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시선을 재검토해 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작업이라든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남북한 교류를 통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보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교류라는 문제설정은 내적 준비상태가 없는 것만을 입증할지도 모른다.

3.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사점

사실 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극히 적다.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자료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정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어렵기도 하고, 남과 북의 청소년이 만난 경험도 그리 많지 않다. 대학생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교류나 제3국에서의 몇 번의 경험을 제외하면 서로 만난 경험 자체가 매우 일천하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 내부의 남북 교류의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류의 기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실제적인 교류 추진보다 중요할 수 있다(조영승, 2000: 121-122쪽 참조).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남과 북의 의식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을 것이다. 남과 북 내부에서 각기 분화가 진행되면서도 남과 북 사이의 분화 역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과 북 사이에 공통된 생활의 토대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정도로 벌어진 사회 발전의 논리와 연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남과 북의 현실적 조건과 청소년의 존재형태가 확연하게 다를 경우 만나서 상호이해 부족으로 여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선입관이 만나서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¹³⁾. 조금 예견을 해 보자면 상대를 만나면 상대에 대한 관념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분단 이후 상당한 정도의 교류를 시행했던 동서독의 경우에서도 의식의 격차 문제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동독과 서독인 사이의 이질감은 통일 이후 점점 확대되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과 북 사이의 교류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 '만남의 방

13) 미국에서 인종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실시한 흑백 통합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의 만남의 과정은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론'이 문제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만남을 준비하고 그 경험을 정보화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남과 북 사이의 차이로 국한시킬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남과 북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동질적 주체 형성이 낳는 문제점이다. 남과 북은 각각 반공규율사회와 반제규율사회라는 틀을 통해 단일국민, 단일 주체를 구성해 왔다(조혜정·김수행, 2000). 반공·반제 규율사회는 서로 상이한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원리라는 측면에 있어 대단히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서로 각기 다른 식의 절대화가 진행되어 온 양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만나서 생산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사소통의 생산성을 가능케 할 사회적 역량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서로 관계 맺는 능력의 부재는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왕따'와 같은 문화로 나타난다. 차이를 수용할 수 없는 문화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대한 절대화로 나타나고 차이를 가진 대상에 대한 차별화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남한 사회 내에서 관찰되는 피해의식의 정치학과 우월감의 정치학이 혼재되어 나타날 때 그 문제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차이를 차이로 수용하지 못하고 위계질서 속에서 배치할 때 관계 맺기는 의사소통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변화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남과 북의 사회가 보여주는 획일성은 얼마만큼 극복되어 왔는가? 이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남한의 청소년이 보여주는 태도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이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바로 그런 점에서 가볍다. 북한의 경우에도 혁명 세대가 퇴진하면서 일정한 자유화가 진행중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⁴⁾.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는 있다. 기존 세대와는 다른 감수성이 남과 북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생겨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감수성의 변화는 기존의 단단한 인식의 벽을 넘어 설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남과 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이는 아직 의식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민족적 과제라는 틀의 접근보다는 개인적 의미를 정리하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 의미를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 통일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통일에 대해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 시작은 북한의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어디에 가보고 싶은가 라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통일에 관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말문트기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욕망 자체를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그들은 '통일이 싫다'고 말하며, '통일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할 줄 아는 것이다¹⁴⁾. 그들은 통일에 대해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민하면서도 당위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세대에 비해 개인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것이다. 이러한 10대의 특성은 통일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설명되지 않고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적으로 보여준다.

통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의 과제를 일상에 위치짓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껏 통일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어 논의되었고 국제정

14) 역설적이지만 북한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경계가 담론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 현실의 단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독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언급 자체가 특정한 문제를 만들어 권력을 통합하는 담론적 장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통합이 와해되고 있는 최근의 사정은 이러한 경계가 단순한 수사학의 차원을 넘어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5)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시점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는 서태지 컴백 문제였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심 자체의 분할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치적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적 과제로 위치지워지든 아니든 일상과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었다. 통일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큰 이야기로, 나의 일상과는 무관한 정치적 차원의 이야기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의 문제를 일상이라는 차원에 위치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생활세계를 복원하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의 과제는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를 분할하고 있는 내적 분단, 혹은 마음의 분단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분단 사회 속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와 배타성의 논리에 우리는 익숙해져 왔다. 생존을 위해 너와 나의 대립을 항상 설정하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작동시켜 왔던 것이 분단 사회의 조건이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의 문제는 일상의 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의 문화적 측면은 바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 위한 연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일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면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문화의 문제는 도구주의적으로 파악된다. 문화를 도구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 설정은 단순히 문화 이벤트를 벌이거나 문화적 행사를 매개로 하는 교류라는 차원에서 문화의 위상을 자리 매김 한다(이영미, 2000. 10).

통일의 일상과 연관시킬 때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가 통일의 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줄 세우는 문화나 왕따 문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문제 등은 동질성에 대한 강박관념과 위계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회 과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타자를 만나고 소통하는 능력과 비례하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이 거대한 타자를 만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을 바꾸지 않고서 통

일이라는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특히 통일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연변 동포,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의 문제에서 드러난 바 있는 것처럼 타문화 혹은 타자와의 관계능력, 혹은 의사소통능력의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로 존재한다. 문제는 한국 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는 기준을 상대화하고 성찰하지 않고서 통일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 실천은 평화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상의 차원에서 자리 매김 되고 고안될 필요가 있다¹⁶⁾.

결론적으로 문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가 자극되고, 자신의 일상을 재해석하는 차원에서 분단의 문제를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문제를 과정 속에서 보는 시간이 없이는 남과 북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 교류의 문제를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은 실천 현장을 만들고 그 경험을 정보화하는 과제는 청소년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적 지침일 수 있다.

16) 이러한 통일 실천을 위해서 통일 문제가 동포를 만나서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 법이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해소하는 한 통일능력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IV.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청소년의 변화 실태

IV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내용
3. 북한 사회와 청소년의 변화

IV.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청소년의 변화 실태

남한에서는 통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중·후반의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청소년으로 불리지 않고 대학생, 또는 사회인으로 불리며, 점차 미성년자의 신분을 벗고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의 개념은 다르다. 북한의 청소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서도 통상 10대의 인민학교 학생들과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청소년으로 간주하지만 그들은 청소년이라고 불리기보다는 학생이라고 불리며,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소년단원, 또는 청년동맹원 등으로 불린다. 또한 북한에서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학생 등을 '새세대'로 통칭하기도 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의 청소년이란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소년단원으로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7세부터 소년단의 조직생활이 끝나는 13세까지의 소년기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이라 함)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정치·사회활동을 하는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북한 사회는 청소년의 연령 범주, 개념, 그리고 용어 등에 있어서 우리사회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형성·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많은 것들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북한 청소년정책으로부터 연유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변화되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실태를 고찰한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북한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란, “자주적인 인간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 품모를 가장 원만히 체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김정일, 1992b : 113)를 말한다.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주요 품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강毅한 의지, 혁명적 랑만과 락관주의”(류만, 1991 : 39) 등이라고 할 때, 북한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청소년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다. 이른바 “주체형의 인간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며 그의 품모를 규정하는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한중모, 1987, 153-164)인 바, 북한 청소년정책의 목표인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의 육성은 궁극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서 구체화되어 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것”(김일성, 1986b : 367)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은 “새세대들을 유치원과 학교시절부터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김일성, 1984 : 558)하며, 각급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야 할 것을 역설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하여 청소년 정책의 목적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는 북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사상교양 강화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김정일, 1998a : 102)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의 사상적 개조를 통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의 육성이며, 이를 위해 북한은 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중시되고 있으며, 학교생활 및 과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 강화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그들을 실천 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청년들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위업 고수 및 통일과업 수행 의지 강화이다.

1980년대 말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탈이데올로기적 국가간 화해·협력 등 대외정세의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난 악화로 인해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체제유지에 불리하게 조성됨에 따라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주의 옹호고수와 조국보위를 중대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수로서 적극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 사상교양 강화

(1) 사상교양 내용

사상교양이란 공산주의의 기본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그러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생활태도를 형성하여 공산주의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62) 그러나 실제로 있어 북한의 사상교양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위한 교양이다. 사상교양의 모든 내용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고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사상교양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공산주의교양,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주체사상교양

북한의 주체사상교양은 모든 사상교양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입니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 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 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이 주체사상원리교양의 내용과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며,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다 포괄시켜 보아야 합니다(김정일, 1987 : 160-164).

또한 주체사상교양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

인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데 있으며,” 또한 “수령을 튼튼히 보위하며, …전당, 전 국가가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우도록 하는데 있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1970 : 151-152)라고 밝히고 있다.

당·국가 활동의 지도원리이며, 북한주민들의 삶의 철학이자 삶의 목표로 되어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 세계관이며, 주체위업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두가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위해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 된다.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 강화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수령의 ‘노작’과 당문헌 원문에 대한 교육에 크게 비중을 둔다.

②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북한의 사상교양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강화는 혁명위업 계승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은 혁명의 계승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충실성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 것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청소년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에 대한 교양을 깊이 있게 하며(김정일, 1996 : 105),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따라 배우는 운동을 심화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양심으로 깊이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는 곧 청소년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서 이른바 ‘혁명적수령관’ 확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

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김정일, 1996 : 74)를 뜻하는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김정일, 1996 : 74)으로 되어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통해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전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도덕적품성이며,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김정일, 2000 : 469)이라고 주지시키고 있다.

③ 공산주의교양¹⁷⁾

가. 계급교양

북한은 학생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며,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라고 한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 바, 따라서 청소년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이다. 북한은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확고한 노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계급교양사업은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적 원수들의 간악하고 음흉한 정체를 철저히 폭로하며 원수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배양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자기 계급적 처지와 혁명투쟁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고 자기 계급과 자기 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 데에

17) 공산주의교양은 김일성의 담화 “공산주의에 대하여”에 근거해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김일성, 1981a : 592-602 참조.

목적이 있으며, 계급교양에서 기본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무장시키는 것”(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171)이다. 따라서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미워하는 정신과 지주와 자본가들을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건결히 싸우는 정신 함양,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인식과 부르조아 반동사상과 반맑스-레닌주의사상, 기회주의사상을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정신 함양”(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172-173)이다. 북한은 특히 자라나는 세세대들에게 “지난 날 지주, 자본가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했는가를 알려주고 그들이 착취제도를 극도로 미워하도록” 교양한다. “자라나는 세세대들이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와 투쟁할줄 모른다면 혁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김일성, 1983a : 91). 또한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에서 ‘반수정주의교양’ 강화를 강조한다. 반수정주의교양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수정주의의 반동적 본질과 그 표현 형태,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강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반수정주의교양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게 하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일, 1996 : 109). 이와 같은 반수정주의교양은 북한이 1980년대 말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청소년의 사상적 이완 내지 혁명성 약화를 크게 우려함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뜻한

다(김일성, 1986b : 384).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0 : 340-341).

북한은 학교교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교양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조국애를 고취시키며,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원수를 증오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원수’란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지주와 자본가”를 뜻한다. 또한 북한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교양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교양에서는 이른바 ‘대비교양’의 방법이 강조된다. “대비교양은 진리와 허위, 진보적인 것과 반동적인 것을 옳게 가려보고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체득시키는 좋은 교양방법”인 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지난 날과 오늘, 그리고 오늘의 공화국 북반부와 남조선을 대비하면서 지주, 자본가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김일성, 1981b : 83)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교양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동요함이 없이 견결히 싸울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기는 것”(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56)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래 북한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청년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¹⁸⁾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며 이를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

북한이 주장하는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혁명가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혁명가들은 미래를 사랑하며 새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적극적으로 투쟁합니다. 새것 즉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에 만족할 수 없으며 더 좋은 앞날을 위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것을 사랑하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김일성, 1981b : 84-85).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에게 ‘혁명적 락관주의’를 함양시킴으로써 패배주의와 비관주의, 우울과 침체를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게 하며,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하게 용기백배하여 일하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혁명적 락관주의’란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굳게

- 18) 1986년 김정일의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는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말한다.(김정일, 1997b : 449-451) 또한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발양에 있어 중요한 요건들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 체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으로의 무장,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강화, 혁명전통 계승 및 민족적전통의 올바른 계승 등을 강조한다. 1980년대 중반 이래 김정일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에서 공식화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북한체제 수호와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개발된 이념이다.

믿고 어떤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비관함이 없이 건결히 싸워 나가는 혁명정신”을 뜻하며, 이와 같은 “혁명적 략관주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치게 되는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사회과학출판사, 1973 : 1234)이다. 또한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교양할 것을 강조한다. 공산주의를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하는 바,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혁명적 략관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요체로 하는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은 김정일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구호에서도 집약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 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하는 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모든 일꾼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김정일, 2000 : 134)는 것이다.

라. 집단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집단과 사회의 이익에는 근로자들의 이익도 들어 있으므로 집단과 사회의 이익은 곧 근로자 자신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구라는 것이다. 북한은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집단적으로 보육 교양해야 하며, “어린이들

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 시책”(김일성, 1986b : 406)이라고 한다. 이는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율생활에 길들이게 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함양케 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 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북한 어린이들은 유아 때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 양육되며 인민학교 입학 이후로는 일상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북한은 집단주의교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김일성, 1985 : 181). 청소년들에게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집단의 힘을 믿고 집단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집단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훈련”(김일성, 1981b : 77)하는 것이 집단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집단주의교양에서는 공동재산 애호 정신 함양도 주요내용을 이룬다. 집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이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중요한 제부는 모두 다 인민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의 열매가 자기 자신과 전체 인민대중의 것으로 되므로 노동은 신성한 창조적 사업이며 전체 인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또한 이러한 논거에서 북한은 노동을 좋아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이와 같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사람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재는 척도라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대한 노동 애호정신교양의 핵심은 “로동이 신성하고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남을 착취하여 잘 입고 잘 먹는 지주나 자본가들을 미워하도록 교양”(김일성, 1981b : 83)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노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지 않으면 사

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정신노동도 육체노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며, 정신노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노동과 결부되어야 하는 바, 청소년들의 학습도 반드시 노동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노력동원에 참여시키고 있다.

④ 당정책 및 혁명전통 교양

당정책 교양이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256)이다. 당정책 교양의 목적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사회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혁명적인 사상독소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등에 있으며, “당정책 교양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로작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며 그것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뼈와 살로 만들게 하는 것,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도록 하는 것” 등이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257).

북한은 청소년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어 특히 당정책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에 큰 의의를 둔다. 북한은 청소년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북한 청소년들은 “당의 군사중시사상과 선군혁명령도¹⁹⁾를 높이 받들고

19) 북한은 “선군혁명령도는 군사중시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특유한 정치방식이며, 군사를 제1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

그것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앞장 서야 할”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혁명전통 교양이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당 사상교양 사업”(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1237)이며, 혁명전통의 주요한 특징은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고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어 있는 주체의 전통”(김정일, 1992a : 470)이다.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혁명전통 교양 강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품을 깊이 체득”(김일성, 1986b : 383)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²⁰⁾ 또한 북한은 이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들에 대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혁명전통 교양자료들에 대한 학습,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과 소설작품 창작 및 보급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 내용을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공산주의교양,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상교양의 모든 내용들은 한결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고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사상교양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위에 열거한 사상교양의 내용들 가운데 ‘집단을 사랑하는 정신’과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교양은 다른 것들에 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로 하

화하여 총대로 당을 옹호하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 우리 당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백전백승의 위력이 있다.”고 한다(김정일, 2000 : 469-470).

20) 북한은 혁명전통 교양에서 항일혁명투쟁뿐만 아니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 건설과 사회주의건설 투쟁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여금 성실하고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집단주의는 일상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을 집단 속에 매몰시켜 그들로 하여금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두려워하여 집단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아를 상실하고 무기력한 채 오직 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케 하는 공산주의적 행동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주의적 통제와 감시, 집단적 사고와 행동의 강요는 청소년 개개인의 존엄성 및 개성 신장을 억압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수동성 내지 소극성을 조장하게 된다. 노동애 호정신교양도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을 합리화하는 주요 근거로서 작용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6세 미만에 속하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또는 방학중에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노력동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봄·가을 농번기에는 주변지역, 또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장기간 농촌동원을 나간다.²¹⁾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 법조문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애호정신 구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에게 '의무화된 노동'이 합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와 같은 사상교양 외에도 북한이 청소년교양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른바 '지덕체교양'이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 인간(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모이며 자질인 바, 청소년들에 대한 지덕체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덕체교양에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할 것, 이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혁명에 쓸모 있는

21) 북한 청소년들의 농촌동원에 관해서는 '좋은벗들, 2000 : 471-475; 서동익, 1995 : 181-185' 참조.

산지식을 배울 것,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집단주의적 생활규범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예절바르게 행동할 것,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키 크기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외체육활동을 전개할 것 등을 강조한다.

(2) 교양방법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위한 사상교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억세게 자라날 것”임을 학교생활과 교육내용에서, 그리고 조직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다짐받고 있다(신효숙, 2001 : 68). 북한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 출판물 및 문예작품의 창작·보급 등이 있다.

①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여타 사회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이며 당적 방침으로 되어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진 사회주의하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군중 교양의 위력한 방도로 되며,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도덕관념이 강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에 완전히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교양 방법이라는 것이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119).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대중들 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을 제 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79년 10월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

동'을 발기하고 전 사회적·군중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 강화해 오고 있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방법으로 적극 활용된다. 북한은 청소년들을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인 바,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청소년들 속에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여 그 모범으로 청소년들을 교양하는 한편, 이른바 '항일혁명투사'와 '전쟁영웅,' '로력영웅,' '숨은영웅'들의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교양한다. 북한은 청소년들이 따라 배워야 할 '항일혁명투사'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 품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러 모시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조국해방전쟁영웅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적을 창조한 로력영웅들, 사회주의조국의 릉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치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은 우리 청년들이 적극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 품모입니다 (김정일, 1998b : 304).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영웅주의' 캠페인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의 일환책이다. 영웅주의 캠페인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따라 배워야 할 영웅들은 전쟁영웅, 노력영웅, 과학기술영웅, 체제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군인, 혁명투사 등이다. 북한은 이른바 '영웅'이 배출된 고등중학교 이름을 '영웅○○고등중학교'로 개명하는가 하면, 2001년 초에 발행된 「로동신문」에는 새로운 시대의 표상으로 '영웅적 사나이'를 제시한 바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영웅적 사나

이의 특징은 “남들이 하나도 하기 어렵다고 도리질할 때 열, 백가지도 해 내겠다고 접어들며, 보통사람들이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궁냥(궁리)을 크게 하고 요란하게 판을 벌리며, 기성관례를 뛰어넘고 상식을 뒤집어 놓으며 일을 하는것”(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1082400700+20010826)으로 묘사되어 있다. 북한은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해 “새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제일 왕성하며 훌륭하고 비범한 큰일을 해보려는 영웅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에 깊이 감동되어 그 모범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김일성, 1981b : 73)라고 규정한 바 있다. ‘영웅주의’ 캠페인은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방안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른바 ‘김정일 명언’ 학습도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의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김정일은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이 따라 배워야 할 가장 으뜸가는 중요한 인물이므로 그의 ‘명언’ 학습 및 체득은 당위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북한은 각 대학에서 ‘김정일의 명언’을 심도 있게 체득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교원들의 교수(강의)내용에 ‘김정일 명언’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과 강의실, 복도에까지 ‘김정일 명언’을 부착하여 ‘명언’ 학습을 일상화,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좌별, 학부별로 문답식 경연, 또는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각종 과외활동 시간에도 ‘명언’ 해설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②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강조하는 바,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학생들을 쓸모 있는 산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김일성, 1986b : 391-392)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을 구원한다는 취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전적지’²²⁾와 ‘혁명사적지’²³⁾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

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과 같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통한 교양 강화는 청소년들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다(김정일, 1992a : 471-473). 청소년들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전적지 답사는 이른바 '항일유격대'식으로 이루어진다. '항일유격대'식 혁명전적지 답사에 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학생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에 나서게 되면 그들 모두는 적위대복을 입고 오각별 모자를 쓰고 흰 각반을 다리에 두르고 "원수님의 배움의 천리길을 따라 배우자"라고 쓴 붉은 천 띠를 어깨에 두르고 배낭까지 등에 매어 마치 1930년대 항일유격대원처럼 차려 입는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줄을 서고 혁명가요에 발을 맞추어 하루 150리 길을 강행군 하며, 곧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를 타지 않는다. 차를 타는 날이면 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고 가슴 깊이 새기는 행군에서 낙오자가 되었다 하여 사상성을 의심받고 두고두고 비판받기 때문이다(서동익, 1995 : 179-180).

북한은 또한 이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취지에서 학생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이는 "생산노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노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바,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노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김일성, 1986b : 392)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화된 것

22) 혁명전적지란 김일성의 '항일투쟁'의 업적이 남아있는 곳을 말하며 대표적인 곳으로는 보천보, 삼지연, 백두산 밀영 등이 있다.

23) 혁명사적지란 김일성의 '무장투쟁' 이외의 업적과 그 일가의 활동과 관련된 곳을 말하며, 김일성혁명박물관, 주체사상탑, 개천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다. 1959년에 공포된 '내각결정18호'에 따른 '학생사회주의의무노동제'에 의하면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6~8주, 인문·사회계 대학은 12주, 기술계대학은 14주 등으로 의무노동기간이 규정되어 있다(서동익, 1995 : 184). 의무노동기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만 하게 되며, 병원이 인정하는 환자 외에는 모두가 노동현장에 나가야 한다.

③ 조직생활 강화

북한은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며(김정일, 1996 : 102), 조직생활을 일컬어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적 교양의 학교”(김일성, 1986b : 393)라고 한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처벌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양, 개조하는 것이 기본인 바, 따라서 청소년들은 소년단과 청년동맹조직생활을 통해 사상적 교양을 받고 혁명적 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국가적 방침에 따라 소년단생활과 청년동맹생활은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이 거쳐야 하는 조직생활로 되어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소년단생활과 청년동맹생활 강화의 의의는 조직생활의 습관화와 집단주의정신 함양 및 사회공동생활규범의 자율적 준수에 있다고 한다.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소년단생활과 사로청생활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버릇을 붙여주어야 그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옳은 인식을 가지고 조직생활을 잘하게 되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된다.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소년단조직생활과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또한 청소년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이 사회의 공동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 1984 : 17).

북한은 소년단생활과 청년동맹생활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케 하고, 자신들이 소년단·사로청(청년동맹의 옛 이름) 조직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게 하며 조직의 규약상 의무와 위임분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일성, 1986b : 393).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조직생활은 정규화·습성화되어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한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은 사상교양을 위주로 한 조직생활을 하며, 그들의 조직생활에서는 ‘비판’과 ‘총화’가 강조된다. 이는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북한은 학생들 속에서 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비판에서 기본은 자기비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청소년들 사이에 호상 비판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소년단과 청년동맹조직생활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자기의 일과 생활에 대하여 매일 돌이켜 보고 “총화짓는” 것을 생활화·습성화해야 한다. 특히 주 당생활총화, 입학전 당생활총화, 분기·학년말 당생활총화, 졸업전 당생활총화를 잘 해야 한다. 북한은 당생활총화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유일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조직생활정형, 학습진행정형,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상 문제, 개체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결함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총화하며, 당생활총화는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사회정치활동 강화

남한 청소년들과는 달리 북한 청소년들은 정치화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는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청소년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이 그들을 능력 있는 혁명인재로, 산 정치활동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김정일, 1996 : 114). 북한이 주장하는 바, 오늘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인 것만큼 학생들을 다 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혁명적인 청소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을 산 사람으로 만들려면 학교에만 붙들어 두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정치활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에서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촉구하며, 그들이 사회정치활동을 통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교양, 단련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정치활동은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김일성, 1986b : 394).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활동은 수령의 교시와 당 방침 해설선전을 기본으로 하고, 과학기술선전, 학술선전, 위생선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전활동과 각종 예술소조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북한 청소년들의 진로는 출신성분과 당성이 크게 작용하며, 특히 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소년단생활과 청년동맹생활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성을 인정받아 보다 나은 진로가 결정되고, 이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보장받고 싶은 바람과 기대에서 비롯된다고도 한다.

⑤ 출판물 및 문예작품의 창작·보급 강화

북한은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중시하여 각종 출판물을 비롯해 영화, 소설 등의 문예작품 내용을 사상적·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읽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신문으로는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가 있다. 이 신문은 1946년 11월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발간된 「민주청년」으로 시작되었으며, 1964년 5월 동 연맹의 이름이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뀔에 따라 신문이름도 「로동청년」으로 바뀌었고, 김일성 사후인 1996년 1월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뀔에 따라 「청년전위」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간지로 발간되고 있는 「청년전위」는 “자라나는 새세대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 추동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 데에 신문 발간의 의의를 두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잡지로는 '청년문학'이 있으며, 잡지에 실리는 시와 소설작품들의 내용은 '수령의 형상화'²⁴⁾와 '당의 위대성 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혁명적인 소설과 영화는 청년들의 혁명의식을 북돋아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영화는 직관성과 호소성이 강한 예술로서 많은 청년들을 집체적으로 교양하는 데 좋은 교양수단의 하나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은 특히 영화를 통한 청소년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평양연극영화대학에 '청소년영화창작단'을 만들어 청년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다량으로 창작·보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영화감상모임과 실효모임사업, 영화의 주인공 따라 배우기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 전개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즈'는 절대 배격해야 할 '퇴폐적인 부르쥔아' 음악이다. “감상과 비애에 잠겨 죽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24) '수령형상창조'란 김일성과 김정일이 쌓아올린 '혁명업적'을 '수령형상' 작품창작의 원칙에 따라 잘 형상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문예이론서인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수령 형상이란 “수령의 혁명력사와 숭고한 품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예술적 화폭에 그려 수령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감득하게 하는 것”(윤기덕, 1991 : 157)이라고 한다. 이른바 '수령형상창조'는 '당의 위대성 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와 함께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기본과제로 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곡조들은 결정적으로 배격”(김일성, 1982a : 451)해야 하는 바, ‘자즈’와 같은 그러한 곡들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혁명의식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퇴폐적 부르조아 문화’ 침습 방지를 위해 민족음악 보급 사업 및 민족음악작품 보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전투적인 행진곡 외에도 혁명적 내용을 담은 서정적 노래, 특히 청년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통속적인 혁명적 노래를 창작·보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적 방침은 1990년대 이래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생활가요’²⁵⁾의 창작·보급과 ‘보천보전자악단’²⁶⁾을 중심으로 한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으로 구현되고 있다.

2)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 강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한 북한 청소년정책의 두 번째 기본방향은 청소년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통해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또한, 그들을 실천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켜야 하는 바, 청소년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은

25) 생활가요란 북한 근로자들의 정서생활을 반영한 노래를 뜻하며, 비교적 사상이 약한 가사와 빠른 템포, 경쾌한 곡조가 특징이다.

26) 1985년에 창단된 보천보전자악단은 ‘밝고 경쾌하고 낙천적인 음악’과 ‘생활적인 음악’을 창작·보급하는 한편 혁명가요, 민요 등을 ‘인민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 재형상하여 보급하는 악단이다. 북한은 보천보전자악단의 음악을 “우리 식의 요구를 구현하여 전자악기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취미와 정서에 맞는 조선식음악을 훌륭히 창조한 빛나는 모범”(김정일, 1992c : 30)이라고 한다. 특히 보천보전자악단이 녹음한 외국음악 카세트테이프와 청춘남녀의 사랑과 생활을 담은 노래들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을 실천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론과 실천교육의 결합' 즉,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원칙의 구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사회주의건설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동원은 '이론과 실천교육의 결합' 원칙하에 합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갖는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선봉대·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커다란 영예이고 자랑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 청소년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의 전위가 되어야 하는 바, 사상혁명의 선각자, 기술혁명의 선구자, 문화혁명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당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해 수령의 교시와 당 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강인한 의지를 키우며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특히 기술혁명 수행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기술혁명을 다그쳐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사업)의 기수가 되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선봉대·돌격대의 역할을 하려면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 청소년들이 해야 할 역할들 가운데 북한은 특히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청년돌격대운동을

강조한다. 북한은 청소년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기술수단을 현대화하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며,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는 데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청년돌격대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당이 맡겨 주는 중요대상건설(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세우는 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을 떨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청년돌격대운동은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며 실천을 통하여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충성의 운동”이며, “청년돌격대운동에서 기본은 속도전 청년돌격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인 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사회주의경제건설 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 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로력부대이며 청년들을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는 혁명학교”라고 한다(김정일, 1997c : 10).

최근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돌격대·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한은 청소년들이 이미 서해갑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광복거리, 북부철길을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 건설에서 위훈을 떨치었듯이 ‘제2의 천리마 대진군’에서도 새로운 탄광개발, 발전소건설, 철도건설,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건설하는 데에 적극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탄광과 광산, 건설장과 벌목장, 농촌과 어촌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떨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 수행은 청소년들의 농촌지원, 경제건설, 좋은일하기운동, 꼬마계획, 각종 선전대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미 법제화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그와 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된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농번기의 농촌지원을 비롯해 국토건설과 토지정리, 나무심는운동, 토끼·물고기 기르는운

동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며, 이른바 '좋은일하기운동'²⁷⁾을 통해 나라 살림살이에 기여해야 한다. '좋은일하기운동'은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생활환경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벌리는 공산주의적 운동이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운동"(김정일, 1997c : 11)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과 집단주의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명분하에 청소년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하고 있다. 좋은일하기운동은 학생들로 탐사대를 조직하여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운동, 소년단립과 사로청립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 지원운동, 전염병 예방운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3) 사회주의위업 고수 및 통일과업 수행의지 강화

북한 청소년 정책의 세 번째 기본방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위업 고수 및 통일과업 수행의 의지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을 일컬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혁명위업의 계승자', '조국의 앞날을 떼메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 등이라고 한다. 이는 곧 북한이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해 나가고 통일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청소년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위업 고수 및 통일달성의 과업은 청소년들의 몫이며, 따라서 청소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는

27) 좋은일하기운동은 1950년부터 시작되어 1970년 이후 더욱 적극화된 운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선물운동과 외화벌이운동이 있다. 선물운동이란 김일성부자의 생일을 비롯해 군창건일 등 국가기념일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헌납하는 운동을 의미하며, 외화벌이운동이란 말그대로 수출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운동으로 토끼기르기, 산열매따기, 산나물과 약초캐기, 특용작물 또는 화초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박성희, 1995 : 89-90).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청년전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당의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된다는 것”(김정일, 1997c : 5)을 말한다. 동구사회주의권이 와해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대외정세의 급속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은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위업 고수 및 조국보위의 의무를 보다 더 강하게 인식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3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현시기 조선청년운동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청년들을 당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입니다. …<청년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당의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바로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청년들앞에 내세우는 혁명적 구호입니다(김정일, 1998b : 296).

라고 밝히고,

청년들이 목숨은 버릴지언정 사회주의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은 죽음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 1998b : 343).

라고 역설한 바 있다. 김일성 역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엄중한 사태와 그것을 계기로 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은 우리 혁명 앞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대한 임무를 제기하고 있다.”(김일성, 1996 : 95)라고 밝히고,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위업 고수 및 사회주의의 완전승

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혁명적 구호' 아래 북한 청소년들이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업은 조국통일 달성이다. 청소년들은 조국통일의 기수이며 통일된 조국의 주인공들인 바, 청소년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위업 고수 및 조국보위와 조국통일과업' 수행을 담당해야 한다는 청소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있다.

첫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이다. 청소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 끝없이 충실해야 하는 바, 혁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영도자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김일성, 1996 : 95).

둘째, 조국보위의 직접 담당자이며 기본역량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충대를 사랑하고 군사에 헌신하는 것이 고유한 품모"로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은 "충대를 메고 조국보위초소에 섰을 때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높은 영예를 지닐 수 있다." (김정일, 2000 : 470)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노동과 국방에 더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들은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도 북한은 1948년부터 모든 고등중학교 고등반 이상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학생군사교육이 의무화되어 현재까지 남녀 구별 없이 군사이론과 훈련을 동시에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박성희, 1995 : 92). 고등중학교 고등반 5~6학년생들은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붉은청년근위대'²⁸⁾에 조직되어 실질적인 군사훈련인 엄

28) 붉은청년근위대는 1970년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서 주요임무는 '김일성의 친위대, 당의 전위대, '군 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

격한 군대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다. 또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역시 예비전력의 준군사조직인 교도대와 인민경비대 등에 조직되어 군사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셋째, 청소년들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야 한다. 이른바 ‘부르쥔아 생활양식’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독소이므로, 청소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유화바람’과 ‘날라리풍’에 유혹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주의 고수 의지 강화이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 멸망의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주의가 제일이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김정일, 1998b : 301-302)고 강조한다.

위의 내용들 외에도 북한은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전쟁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북한은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했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긴장”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전쟁관점을 바로 가지고 적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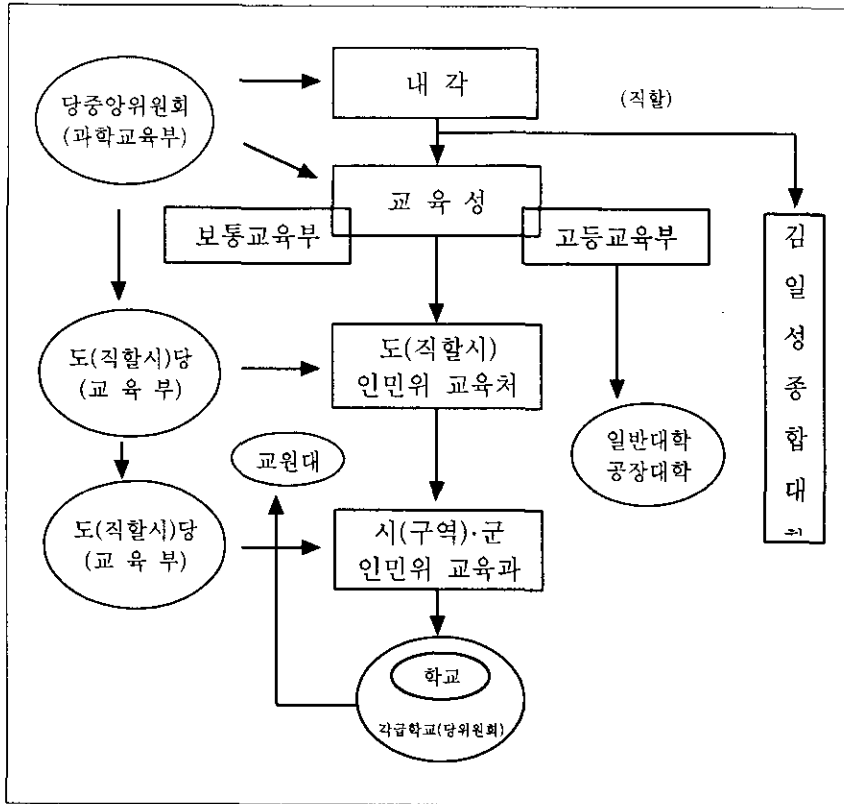
로서 전시에 정규군을 보충하고 후방지역 및 해안을 경계하는 것 외에 반혁명요소 적발, 전체 사회단체들의 사상교양, 전투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박성희, 1995 : 94-95).

2.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내용

1) 청소년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기구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북한의 "전체 근로대중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며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계급의 당으로서 헌법상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이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으므로 북한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수립, 집행된다. 청소년정책도 이른바 '당적지도'의 원리에 의해 수립, 집행된다. 청소년정책의 당적지도는 노동당과 수령에 충실하고, 교육현장에 당을 중심으로 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연합뉴스, 2000 : 459).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노동당 기구로는 당 과학교육부가 있다.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도, 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 학교의 학교 당조직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내각의 청소년정책 관련 기구는 교육성이다. 교육성은 당 과학교육부의 지도와 통제아래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내각의 교육성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다. 고등교육부는 대학교육, 보통교육부는 유치원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원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내각 직속이다. 지방에는 시·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교육처와 시·군·구 인민위원회의 교육과가 있으며, 이들의 지도와 감독아래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능을 집행한다. 이 밖에 교육성 산하에 교육기자재공급총국이 있다(연합뉴스, 2000 : 460).

[그림 IV-1] 북한의 교육행정체계



※ 자료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0), 267쪽.

2) 청소년조직과 활동

북한 주민생활의 기본원리는 집단주의이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사회적으로 양육되며, 인민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일상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소년단생활과 청년동맹생활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은 고등중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진학, 군입대, 취업 등으로 진로가 결정되면 청년동맹생활 외에도 결정된 진로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또 다른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취업

하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직업총동맹에 가입해야 하며, 농민인 경우에는 농업근로자동맹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인 경우에는 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이 외에도 북한 청소년들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인민경비대 등 민간군사조직에 편성되어 군사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북한 근로단체는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의 역할을 하며 당적지도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근로단체의 성격 및 역할, 조직적 위상에 대해 노동당규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노동당규약 제56조).

위에서 언급한 많은 북한청소년 관련 조직 중에서 대다수의 북한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조직은 소년단과 청년동맹이므로, 북한의 청소년조직과 활동은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년단

북한은 소년단원을 일컬어 '나어린 혁명전사', '꼬마건설자',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²⁹⁾라고 하는가 하면, 소년단원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인민의 행복'이고 '우리 당의 기쁨'이라고 하여 소년단원들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기대와 관심은 북한주민 모두에게 있어 의무

29) 소년단 입단시 "나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입단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화된 일상적인 정치조직생활의 첫 공정이 소년단조직생활이라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생활의 첫 공정은 유치원생활이지만 유치원에서는 정치조직이 없으므로 유치원생활을 정치적 조직생활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년단생활이 청소년들의 정치조직 생활의 첫 시작이라고 한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소년단생활은 이른바 ‘은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기초조직생활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소년단 때부터 정치생활에 참가하기 시작하며, 소년단생활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인 정치사상적 단련을 받고 집단주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소년단조직생활을 말할 때, “소년단원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학교”(김일성, 1986a : 164)라고 한다.

‘조선소년단’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이루어진 소년들의 혁명적인 공산주의적 대중단체”이며,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 받아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나라 소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김일성, 1986a : 158)으로 일컬는다. 소년단은 1946년에 당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현재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산하조직으로 창설된 단체로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 조직(1926년)을 계승”하여 청소년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해 결성된 단체’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소년단의 설립목적은 청소년들을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역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1017)고 하며, 이와 같은 설립목적은 소년단 입단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소년단 입단선서는 “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근위대, 결사대로 의세게 자라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134)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소년단에는 인민학교 2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의 학생들

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현재 소속 학생 수는 약 3백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제정보연구원, 1999 : 470). 소년단 입단은 주로 김일성생일(4. 15), 김정일생일(2. 16), 소년단 창립기념일(6. 6)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입단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며, 입단식에는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이 참석하여 소년단 입단의 의의와 입단식의 비중을 높인다. 소년단은 해당 시·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부의 지도하에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다. 각 학교에는 학교소년대(대장 1명, 대원 6~19명)가 있고, 그 밑에는 학년단위로 분단(분단장 1명, 위원 4~6명, 분단원 15~50명), 학급단위로 반(반장 1명, 부반장 1명, 위원 3~5명, 반원 10~15명), 학급내 소조단위로 분조(분조장 1명, 분조원 3~7명)로 구성되어 있다(박성희, 1995 : 112-113). 소년단 지도사업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노동당의 위임을 받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75년부터 소년단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소년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제정, 수여하고 있다.

① 주요 임무와 과업³⁰⁾

북한은 “지덕체를 갖춘 ‘나 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는 것이 소년단원들의 전투적 과업”(김일성, 1986a : 161)이며, “당에 대한 충실성은 소년단원의 제일생명”(김일성, 1990 : 144)이라고 한다. 또한 당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단원들은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는 바,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언제 어디서나 당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영원히 당을 따라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년단원들에 주어진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은 다음의 아홉 가지로 집약된다.

30) 소년단의 임무와 과업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담화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와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 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자”를 중심으로 서술함(김일성, 1984 : 191-198; 김일성, 1986a : 160-165).

가. 소년단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조직생활을 잘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이고, 따라서 소년단원들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시절부터 그것을 빛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년단원들이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소년단 규약을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년단원들은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조직에서 받은 분공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해야 하며, 늘 조직적·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조직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되 결정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년단조직생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단조직내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해야 하는 바, 소년단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잘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혁명적 세계관이 선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단련시켜야 한다. 소년단조직생활은 군대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소년단원들 가운데 모범소년단원으로 선발된 일부는 ‘소년단야영소’³¹⁾에 일정기간 입소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에 관한 학습을 비롯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참관, 사상교양,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소년단야영소’ 생활은 군대식의 규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가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하기 위해 학교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소년단원들은 학습을 열심히 하고 이를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국가계획에 따른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여러 가지 학교소조활동도 실속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단원들에게 있

31) 소년단야영소는 청소년들의 혁명성을 고취시키고 소년단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 및 각 도에 설립된 소년단의 파외활동센터이다(박성희, 1995 : 117).

어서도 학습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혁명임무이다. 그러나 학습에 있어 우선적인 것은 당 정책과 혁명전통 학습, 수령의 노작과 당 문헌에 대한 학습 등이며, 소년단원들은 정치지식과 군사지식, 일반과학지식을 배워야 한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에 대해 산수와 이과 같은 과목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혁명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학습은 노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실천활동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논거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소년단원들의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 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은 꼬마계획³²⁾ 선물운동, 외화벌이운동을 비롯한 좋은일하기운동, 당정책선전대활동, 위생근위대활동, 녹화근위대활동, 소년단립조성운동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소년단원들은 각종의 예술소조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공산주의 도덕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며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좋은 사회주의제도인 바, 소년단원들은 행복한 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그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는 정신은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나타나는 바,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2) 꼬마계획이란 북한의 경제계획과 병행하여 인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등 폐품수집활동으로, 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일정한 할당량이 주어진다(박성희, 1995 : 88).

라.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이 착취와 압박을 당해본 적이 없고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이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촉구한다.

마. 집단주의 정신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함양해야 한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에 대해 어려서부터 동무들과 인민을 사랑하며 혁명조직과 집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년단원들은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영예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학교생활 규율을 비롯해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소년단원들은 옷차림과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을 쓰며, 선생님들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 노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도와야 한다

노동을 사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므로,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노동을 사랑하고 노동을 즐기며 부지런히 일하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에 대해 노동애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과 학교일을 성실히 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노동에 적극 참가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좋은일하기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 사회정치활동을 잘 해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에 대해 사회정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당 정책을 비롯한 과학, 예술, 위생 등을 해설 선전하는 ‘꼬마선전자’로서의 역할과 아버지, 어머니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고무하는 ‘꼬마선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특히 소년단원들에 대해 당 정책을 잘 파악하여 과외시간과 방학 동안을 이용해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인민반에 나가 그것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 선전하며, 이와 같은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일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지지성원” 해야 하며, 조국통일의 영예로운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세계 여러 나라 소년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나라 소년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소년들과 단결하여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없고 지주, 자본가 계급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년단원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946년 1월 창설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발족되었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1951년 서울과 평양의 남북조선 민주청년동맹의 통합을 계기로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그 후 북한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1964년 5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인 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그 명칭을 다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북한은 “조선청년운동의 역사는 수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이며 청년동맹은 수령의 청년동맹이므로 사로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는 것은 응당한 일”(김정일, 2000 : 139)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청년동맹을 일컬어 ‘당의 정치적 후비대’, ‘최고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별동대’,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 대중적 정치교양의 학교’라고 하며, 청년동맹은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 ‘영원한 동맹자’, ‘당을 결사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돌격대,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청소년들은 청년동맹을 통하여 당과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청년동맹 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이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에서 청년동맹은 “광범한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유일한 대중정치조직”(김정일, 1997 : 45)으로 되어 있다. 청년동맹은 ‘주체의 혁명적 청년조직’으로서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수령이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는 것이 청년동맹의 기본사명이며 조선청년운동의 총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2000 : 140).

북한은 청년동맹 결성의 이유와 관련해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적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바, 청년동맹조직을 통해 청년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청년동맹원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년동맹 결성의 진정한 의의는 청년동맹이 노동당의 핵심전위조직이며 북한의 핵심적 체제보위집단이라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청년동맹의 조직적 위상은 노동당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당규약 제56항에서 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청년동맹 조직의 목적이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의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박성희, 1995 : 119). 이와 같은 조직의 목적은 청년동맹가입시에 하게 되는 청년동맹원 서약에서도 나타나는 바, 가맹이 승인된 사람은 “나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으로서 항상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선배들처럼 일하고 배우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울 것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한다.”(북한연구소, 1983 : 1318)라고 서약한다.

청년동맹에는 만14세부터 30세까지의 학생과 근로자, 군인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현재 청년동맹원 수가 5백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제정보연구원, 1999 : 470). 청년동맹원은 조직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거나 집행기관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당에 입당하게 되면 청년동맹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거친 다음에 청년동맹조직생활을 하게 되며 청년동맹조직 생활과정에서 당원이 되기 위한 정치사상적 준비를 갖추게 된다.

① 주요 활동사업

청년동맹의 사명은 “청년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고 당 및 국가 기관의 간부후비를 양성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청년들을 힘있게 조직동원”(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 1014)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동맹의 주요 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교양, 공산주의사상 주입을 위한 학생들의 정치학습 조직, 학생 의무노동 조직 및 감독, 기술혁명으로 생산능률 제고, 체력증진, 공공재산의 수호정신 고취, 반제·반일투쟁의 선전선동, 김일성 혁명전통교양사업 지도, 계급교양사업 지도, 학생들의 교외활동 지도, 소년단에 대한 지도 등이다(북한연구소, 1983 : 1317). 청년동맹이 위와 같은 사명 및 주요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개하는 주요 활동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가. 학교 청년동맹사업과 소년단사업 강화

청년동맹의 첫 번째 사업은 학교 청년동맹사업과 소년단사업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청년동맹은 다음의 네 가지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첫째, 청년동맹조직생활과 소년단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늘 조직적·집단적으로 생활하게 하며 자기 조직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며 소년단 시절부터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한다. 둘째, 청년동맹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며 학생들에게 나쁜 사상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나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한다. 따라서 청년동맹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들에 대해 정치사상 및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 일이다. 셋째, 학교 청년동맹지도원은 학생들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청년

동맹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사회적·정치적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며 육친적으로 보살펴준다면, 사로 창조직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양식을 주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워줍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교양이 도덕적교양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조직의 교양은 사상적교양이며 부모가 자식들의 육체적생명을 보호하는 혈육적보호자라면 사로창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보호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 1985 : 179).

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청년동맹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정치적 보호자로서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감독할 책임도 있다. 넷째, 청년동맹은 청년돌격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청년동맹은 청년돌격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당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동맹지도원은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전투장에 나가 강연회와 담화, 청년예술선전대 공연, 영화관람 등을 주선하며, 돌격대원들의 부식물 공급과 필요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나. 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 조직 및 과외생활 책임 지도

북한은 학생들의 수업 후 과외시간은 청년동맹조직과 소년단조직이 관리하도록 하며, 이는 교원들의 학생 통제가 수업시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후 과외시간을 청년동맹조직과 소년단조직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동맹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이 학생들의 사회적·정치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 및 과외생활에 대한 청년동맹조직과 소년단조직의 지도는 학생들 사이에 예술소조·체육소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조활동을 조직하는 것과 각종의 선전대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청년동맹은 북한 청소년의 체력훈련 및 문화예술 활동을 주관한다. 체력 훈련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예술활동 역시 각종 기념일이나 대회 때에 열리는 집단공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청년동맹은 청소년들의 독후감 발표 모임, 시낭송 모임, 가요보급 모임, 영화감상 모임, 창작발표회 등 각종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주관하며, 학생들의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활동을 독려, 지도한다.

다. 공산주의적 청년핵심(노동당원의 후비) 육성

청년동맹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생활을 책임지는 ‘당의 정치적 후비대’이다. 소년단원을 거친 청소년들은 청년동맹조직생활과정에서 당원이 되기 위한 정치사상적 준비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청년동맹의 주요사업의 하나는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청년핵심, 즉 노동당원의 후비를 육성하는 일이다. ‘공산주의적 청년핵심’이란,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선 청년들, 다시말하여 계급적 립장이 확고하고 사상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었으며 일생동안 당과 혁명을 위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겠다는 혁명적인 각오를 가진 청년들”을 말하며, 또한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남반부에도 공화국북반부와 같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공산주의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김일성, 1984 : 28-29)을 말한다. 공산주의적 청년핵심 육성을 위한 청년동맹의 첫 번째 임무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지닌 혁명가로 키운다는 것이다. 북한은 청년동맹에 대해 청소년들을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그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라. 청년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 강화

청년동맹의 주요 사업들 가운데 또 하나는 청년동맹원 개개인의 조직

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북한은 청년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 이른바 '조직생활카드제'를 활용하고 있다. 조직생활카드제란 소년단 때부터의 조직생활정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청년조직들이 모든 소년단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의 생활정형을 그가 옮겨가는 조직에 체계적으로 알려주어 조직생활 지도에서 계승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조직카드에는 소년단조직생활 및 청년동맹조직생활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학업성적, 품행, 취미와 소질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며, 조직원이 다른 조직에 가입하거나 당원이 되면 조직카드도 그의 소속처로 넘겨지게 된다. 조직카드제의 의의와 필요성과 관련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매 사람마다 소년단 때부터의 조직생활 정형을 밝힌 카드를 만들어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때에는 그곳 사로청조직에 보내주며 사로청생활을 하다가 당에 들면 당조직에 보내주고 직맹, 농근맹, 녀맹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넘겨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년단생활과 사로청생활을 거쳐서 장년으로 되는것만큼 앞으로 조직생활카드를 계통적으로 만들어두면 사람들을 료해하느라고 분주히 뛰어다닐 필요가 없게 될것입니다. ...매 사람들의 조직생활을 체계적으로 장악하는 제도를 내오면 본인의 사상적 준비 정도와 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김일성, 1984 : 21-22).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동맹원들의 조직생활 지도 강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조직카드제란 조직원 개개인의 사상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당적 통제를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사업들 외에도 청년동맹은 '국제적 단결과 전투적 연대성 강화'

를 중요사업으로 조직, 진행한다. 청년동맹은 설립 초기인 1946년 6월,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했으며,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빨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신흥세력나라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굳게 단결하는 것과 함께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3. 북한 사회와 청소년의 변화

1) 북한 사회의 변동 실태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사회 변화의 징후로서 지적될 수 있는 현상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를 더 할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사회 변화는 사회적 일탈행위의 증가, 장마당의 활성화 등에서 나타나며, 또한 1990년대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의 일부 수정·개선³³⁾ 및 신설³⁴⁾은 북한 사회 변화를 법적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를 통해 북한에서 나타난 각종의 사회적 일탈행위는 뇌물수수·물자유용 등의 부정·부패행위, 횡령·절취·암거래·매매춘 등의 생계형 범죄행위, 국경지역으로부터의 자본주의 ‘황색바람’ 확산, 주택 불법 전매 및 노동자 태업·도박·장사 등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자유연애와 혼전·혼외 임신 등의 성의식 문란행위, 그리고 무속행위 등이다.

북한은 2001년의 ‘당원학습제강: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계급투쟁의 날을 날카롭게 세울데 대하여’에서도 “오늘 ... 일부 당원들 속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 지금

33) 북한은 1992년에 북한형사소송법의 인권관련 규정(4조와 174조)을 일부 수정·개선하였으며,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인권관련 조항(86조)을 부분 수정하였다.

34) 1998년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5조)”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부 당원들 속에서는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을 날카롭게 벌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쁜놈들이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해 환상을 퍼뜨릴 수 있는 잡소리를 쳐도 가만히 듣고 있다.”라고 하며,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들과 퇴폐한 생활풍조에 계급투쟁의 날을 날카롭게 세울 것”을 요구함으로써,³⁵⁾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사회에 각종의 체제일탈적인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상 2001년 한 해를 통해서도 북한은 연초 김정일총비서의 ‘신사고’ 발언과 함께 여러 가지 양상의 사회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80년대 말 이래 지속되고 있는 북한 사회 변화의 내용 및 추세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와 같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아닌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경직성보다는 유연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복권과 계의 성행, 잡상인 및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복권은 북한당국이 ‘통화환수’를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정책적으로 발매해 온 것이나 최근에는 거의 일반화되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³⁶⁾ 계는 식량계와 현금계가 있다. 식량계(모아먹기 계)는 가정주부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보름단위로 계 날짜를 정해 껌날에 쌀 한 되 정도의 식량을 내는 계이며, 집안의 큰 행사 때에 매우 유용하므로 북한 전 지역에서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현금계는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며 주로 아파트와 직장단위

35) 조선로동당,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계급투쟁의 날을 날카롭게 세울데 대하여」(당원용), 2001년 6월,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 www.nkd.or.kr

36) 복권은 기본적으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나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무마 차원에서 더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 조직된다고 한다. 종래 북한당국은 계모임을 “종파분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수령의 영도적 권위와 당의 혁명전통, 당의 노선과 정책을 헐뜯는다”라는 이유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자구책으로 간주하고 묵인하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잡상인은 주로 열차내에서 활동하며, 의료인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불법으로 퇴직한 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진찍기, 밀주제조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사회 변화의 단면은 북한주민의 문화생활의 다양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화생활의 다양화는 평양 ‘청년중앙회관’과 ‘만경대학생소년공전’ 등에 전자오락기³⁷⁾와 노래방 등의 오락시설 구비, ‘평양바둑원’³⁸⁾ 개원, 평양에 선술집 등장과 생맥주공장 건립,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기타연주 등에서 나타난다. 이 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교육의 열기와 영재교육 강화도 북한사회 변화의 단면을 보여 준다.

위에서와 같은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 및 추세는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가 확산·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이와 같은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는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김일성과 당, 사회주의가 없으면 못 산다고 믿었으나 이제는 돈과 시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연합뉴스, 1999. 3. 18)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37) 전자오락은 1980년대 말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92년 김정일의 적극 권장 이후 점차 청소년 놀이문화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38) 북한에서 바둑은 대외교류 및 외화획득을 위한 정책종목이었을 뿐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스포츠’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북한은 ‘권장할만한 두뇌 스포츠’라고 하여 바둑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작용한 요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상호 연관성 있게 작용한 요인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와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 사조 및 문물의 침투라고 하겠다. 1980년대 이래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한 물질적 결핍과 생활고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집단보다는 개인과 가족, 정치·사상보다는 돈과 물질적 가치, 일신의 출세와 안락, 생계유지 등을 중요시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 가치관, 실리주의적·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형성케 했으며, 이와 같은 가치관 변화는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로 인해 보다 더 확산·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의화난 등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식량난이라 하겠으며,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와 동요계층의 증대이다.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일탈행위 및 가족해체 현상 급증, 사상적 해이와 자본주의 문화 수용의 확산·심화, 체제비판적 행위 증대, 집단주의적 사고 및 의식 약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형성, 청년층 및 군인들의 의식변화 확산 등의 현상이 보다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량의 급증과 이에 따른 주민 상호간 정보유통의 증대이다. 또한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인구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해외정보 유입도 증대하고 있다.

셋째,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이 잦아짐에 따라 야기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이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한 공식 배급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장

마당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부장적 국가관에 바탕을 둔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당성 상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국가와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충성보다는 독자적 능력에 의한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주력하며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공식 배급체계의 기능약화로 인해 사회통제가 이완됨에 따라 공공물자 횡령·절취, 노동자들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관료들의 부정·부패, 국경 밀무역 등 각종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주민들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요인에 의한 계층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넷째, 물품가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체득하고 있다.

다섯째,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자본주의적 사고 및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섯째, 장마당에서의 상호접촉 및 정보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도 보다 더 빠르게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다.

(2)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유입으로 인해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가치관 변화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80년대 말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체제비교적 관점에서 북한사회주의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귀북(歸北) 채려시아 벌목공,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하는 중

국조선족, 식량구입을 위해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 국경 밀무역꾼,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외교관 및 무역관, 해외유학생, 각급 기관의 외화벌이 일꾼 등에 의해 해외정보 유입량이 증대되면서 점차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체제비판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청소년 계층에서는 국경지역과 평양에서부터 불어온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비교적 빠르게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말해 주는 단적인 예로, 최근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본산 셔츠에 맘보바지를 입고 중국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한국가요를 한 두곡 부를 줄 알고, 이에 맞춰 춤도 출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멋쟁이’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의 변화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있어 변화가 초래된 것은 1988년 임수경의 방북이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남한에 대한 정보가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면서 대남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남한의 경제발전상과 정치적 민주주의, 자유 등에 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대남 적개심과 호전성이 점차 약화·해소되고 남한사회와 주민에 대한 호기심 내지 동경심이 증대되었으며, 남한의 대북 인도적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대해 북한당국은 “남한사회에 대한 우상화를 가지지 말데 대하여”라는 특별지침을 하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위에서와 같이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상호 연관성 있게 작용한 요인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와 부분적·제한적·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라고 할 때, 북한의 경제난 해결이 장기화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한 체제개방 확대 및 대서구관계 개선에 따른 외부사조·문물의 침투가 거세진다면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청소년의 변화와 한계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당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말해 주듯 1999년의 한 서한에서 김정일은,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 내부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어 썩어 빠진 부르조아사상과 풍조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시키며 특히 세세대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조아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주의제도를 썩먹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김정일, 2000 : 474).

라고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상적 이완 및 가치관 변화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도 최근호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사상투쟁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청소년들속에 밖으로부터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 도덕과 생활풍조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치는 동시에 그것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온상인 낡은 도덕과 생활양식을 뿌리 뽑기 위한 조직적인 통제와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청년전위, 2001. 5. 25).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도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양상 및 추세를 나타낸다. 청소년들은 당이 공식 지향하는 가치인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삶, 돈과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규격화된 획일적·폐쇄적 생활보다는 점차 유연성 있고 다양한 개방적인 삶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기타연주가 유행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영어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원들 말도 안듣는 ‘불량학생’이 늘고 있다”(좋은 벗들, 2000 : 464)는 사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엉덩이춤’(디스코)을 추며,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기르고 장마당에서 청바지와 외국글씨가 써있는 옷을 구해 입는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북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변화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실태 중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패션, 화장 등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예전과는 달리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음... 문화라고 하면... 문화는 앞선 애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 패션문화라던가, 놀이문화를 주도 하는게 그 귀국자, 일명 귀국자라고 부르는 북송동포들, 그 자녀들... 내지는 외국에서 살다운 애들... 그런 애들쪽으로 물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옷 입는 그런 것에 따라서 패션문화도 막 바뀌어요. 여기는 스타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스타들의 옷이 유행되고 그러잖아요. 거기 북한사회에서는 스타가... 우리 나이 또래에 스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없으니까 거기엔... 그런 귀국자들이나 좀 잘사는 애들 옷, 패션이 많이 유행되죠. 어... 그런 유행한다는 그 것 자체가 벌써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비디오 같은 것도 언뜻 보기에 중국에서 공테이프 같은 걸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그런거 내놓고 팔 수는 없고 밀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학생들이요... 교복보다는 이쁜걸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쁜거... 편(머리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짝반짝하는거 있거든요. 그런거 많이 쓰구요. 옷도 교복을 많이 안입고, 교복보다는 사회에서 처녀들... 아가씨들이 입는 그런 이쁜 옷들을 많이 찾거든요.

또한, 북한청소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서방세계나 남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이러한 정보입수가 북한청소년들의 의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은데요. 제약두 있구요.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다 불법이죠. 외국...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국(음악, 가요) 테이프를 통해서 한국 노래를 듣는다던가. 그 다음에 뭐... 몰래 중국 TV를 본다던가... 몰래 한국 라디오 듣는다던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서구문화인지, 남한 문화인지, 알지 못하고 듣고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북한청소년들의 변화되고 있는 실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문제 영역이라고 한다. 이것은 북한 사회의 경제난 악화에 따른 가족 해체, 학교붕괴, 그리고 도덕적·윤리적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폭력은 좀 요즘 지방마다 차이가 많이 심한데 좀 지역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싸우면 장난 아니예요. ... 거의 200이 한꺼번에 확 붙었는데 거기서 옆에 두만강이 만났던 다리에서 싸움했거든요 막 돌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보니까 (뿔로) 내리쳐서 심했죠.”

“북한에서는 싸움도 조직 아녘니까.우리는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엄청 혼났어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거 싫어해요. 애들 모아 가지고 우리 조직적으로 김일성을 연구하자 뭐 이렇게 하면 국가에 알리지도 않고 우리끼리 조직을 했잖아요? 그것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사상을 잘못 가지게 되면 그거는 적당히 제압할 수가 있는데 만약 조직적으로 얘기하다 조직적으로 사상을 잘못 가지면 그것은 건전치 못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조직적으로 하다 걸리면.....”

“우리는 그냥 오로지 애들만 보면 우리 쪽 애들이 외지 애들만 무조건 잡아 뺐어요. 누구든 잡아 패면 또 그 외지엔 나름대로 친척이 있잖아요. 개가 또 그 쪽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싸움 붙고 맨날 그냥 싸움질

하고 학교에 가도 어지간한 말다툼가지고도 요즘은 신경이 너무 예민해 가지고 어지간한 말다툼 가지고도 싸움하면 책상 걸상 다 부러지고 이젠 우리 반 원래 책상 걸상이 새거였는데 그게 또 다 부러져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그거 다 고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졸업하기 전에 그거 다 고치고 막 그랬어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남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폭력은 억압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타집단에 대해 물리적 공격을 시도하고 이와 같은 싸움을 통해 승자는 또 다른 쾌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등 일련의 왜곡된 폭력의식이 북한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폭력 이외에도 중요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북한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폭력과 동일하게 일종의 사회적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면접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절대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청소년 공간을 갖기 위한 도구로 보여진다.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요새는 정말 진짜 장난도 아니예요. 저는 담배 2학년 때부터 피우다가 지금은 끊었는데, 중학교1, 2학년 때 담배 피우는 애들 다반사구요, 그러구 또... 북한은 담배가.....술과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면 술 먹잖아요. 모이면 술 먹고...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뭐하면 담배 피우고... 수업 끝나고 나와서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막 담배 없으니까 담배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막 담배 한대 가지고 나눠 피우거든요. 그렇게 나눠 피면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담배 안 피면 진짜 왕따 되기 쉽죠.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나오고 그냥 딴 애들 다 나갔는데 몇 명만 교실에 남아있으니까 왕따처럼 보이는 거죠. 주로 술 같은 문제도... 요즘에는 북한에서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교칙상으로는 불법인데 화장실에 가면 담배꽂초 때문에 하수도가 막히고 진짜 학교에서도

꿀칫거리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몽땅...담배 피우는 애들 몽땅 처벌할 수도 없는거고... 근데, 처음에는 학교측에서 통제를 심하게 해서 규찰대에 잡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통제가 잘 안되니까 규찰대 애들이 담배 피우는데... 같이 담배 피우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통제하다가 안되면은 또 못 그러고... 근데 요젠 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담배 얻어 피우기 위해서 막 화장실에 잠복해 있다가 담배 피우는 애들 딱 잡아가지고 담배 뺏어가지고.....

저희 반에선 두 명을 제외한 전부 다가 피웠어요. 출석인원에서 두 명을 제외한...

술도 거의 마셔요... 그런데 담배는 다 같이 나눠 피우고 그러는데 술만큼은 친한 몇몇 애들끼리 모여서 하고..."

이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청소년들에게 있어 음주와 흡연의 문제는 기성세대까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폭력과 더불어 이들 문제 행동들이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는 점은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이 이야기한 중요한 북한청소년 문제는 여자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낮은 지위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문제로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이 심각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과 폭력이 남자 청소년 및 교사나 기타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 하나의 범죄로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지만, 범죄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불어 현재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낙태를 금하고 있어 커다란 경제적 지출이 뒤따르거나 또는 미혼모로 전락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희에선 그런 건(원조교제) 못 봤는데 우리 학교에 남자 선생 하나가 내일 모레 결혼할 선생이 자기네 학급에 여자애들 둘을 한 거의 여섯달 데리고 살았어요. 학교 경비설 때마다.... 선생이 개네 둘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전날에 애들이 배 나온거예요. 둘 다 임신한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 아버지가 군교육부에 교육부장 다음으로 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제재는 하나도 안 받았고 그냥 시골농장에 시골학교 애들 열 명 있는데 그런대로 선생이 그냥 전학 갔어요....

애는 못 낳지요. 떼어 버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사람들 자체가 애들을 많이 안 낳아요. 왜냐하면 낳아 봤자 키우지 못하니까 버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임신하는 데로 다 지우자 하는데 요즘 뭐 종자 마른다 해 가지고 김정일이 말하길 애들은 그거 절대 못하게 하라고. 이거 떼는 거 가뜩이나 종자가 계속 마르고 있는데 그럼 안되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산부인과에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거 불법으로 돈 내고 해야 되요.

원조교제 같은 건 없지요. 어른들이 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강간하는 건 있지요. 애들을.

성범죄는 여기와 비교하면 0.1%? 근데 우리 동네 한사람이 미성년자를 강간했는데 자기 딸이었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부인이 누워있는 자리에 애가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착각한 거예요. 애가 막 발악하며 소리쳤데요.....애가 임신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돌 던지고....”

또한, 북한 청소년들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불법적인 장사를 하기 위해 또는 가족 내에서의 심한 갈등 등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가출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또는 탈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80명 정원인 한 반의 경우 20명 정도가 장기 결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탈북청소년은 이에 대해 들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 해주었는데, 한 고등중학교 학생이 탈북해서 2년 동안 중국생활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는 이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교사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피해다니면서 결석과 가출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출과 관계없이 학교 결석만을 하는 경우 먹을 것이 없어 신체적 허약상태가 됨에 따라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청소년들의 변화는 그들의 대남인식에서도 나타난다. 학교와 소년단조직 및 청년동맹조직에서는 남한에 대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으로 배웠으나, 국경지역과 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색바람을 접해 본 청소년들은 남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선 남한을 생각하기론 미국이 준 돈으로 밀가루 사고... 남한은 미국을 추종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아니었을까...(미국이 시켜서 한 것 이라는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돈은 없고 그냥 미국이 먹을 걸 다 주고...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잘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북한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강통차고 먹을거 구걸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크면서는 일본만큼 잘 산다더라..., 일본하고 한국하고 양쪽이 거의 비슷하다더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 남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라디오 라던지... 조금씩..., 남한방송 듣는 사람들이 몰래 듣고 그런 걸 소문을 내요. 잠수함 내려간 것...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남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남한에 대해 직접 볼 수 있는 건 TV에서 데모할 때..., 남한측에서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악독하게 하는지... 남한 사람들은 전부다 한총련인가보다... (웃음...) 그렇지만 TV화면에 나오는 배경 장면들을 보면서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은 북한 주민들도 그런 것이 소문나서 다 알고 있어요.

위에서와 같이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청소년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요인 역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라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난 해소가 장기화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 체제개방이 확대된다면 청소년들 역시 가치관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은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양상을 띠면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박성희 외, 1993 : 48), 북한 청소년의 변화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상하건대, 이와 같은 한계는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타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전면적으로 강화될 때에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

1990년대 말 이래 식량문제를 비롯한 북한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 회복은 여전히 대외지원 및 협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미·일 관계 개선 및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절대 요구되는 실정에 놓여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에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우려하면서도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및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교육과 감시 및 통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체제 안정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종래의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도 후반 이래 연이어 성사된 대서구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적극화,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가속화된 남북관계 개선, 2001년 초 김정일총비서의 '신사고' 발언 등은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사회 및 청소년의 변화가 한계를 드러내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양상 및 추세로 진행되리라고 전망된다.

V.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접근방향
2.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방안

V.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남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 청소년 통일문화 실태, 그리고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청소년 변화 실태에 기초하여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향적 통일교육 개선, 통일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이버를 통한 통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제방안을 제시한다.

1.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접근방향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접근 방향은 과정적이며 도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완전하거나 완성을 가정한 접근 방향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설정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몇 가지의 접근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간에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름’과 ‘차이’의 의식이나 문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통일문화를 열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본다.

1) 새로운 가치의 창출

가치관은 개인의 행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식 형성에 불가결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하는데 원칙적 규율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인 개인 및 집단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생존유지 그리고 발전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 즉,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공통의 인식기반 및 가치가 존재하는가?이며, 그 인식과 가치관의 뿌리는 전통적인 문화와 규범에서 전래되었는가? 아니면, 근대화 과정이나 상이한 체제의 정통성 수립과정에서 조작적으로 형성된 것인가? 라는 문제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한은 공통의 역사적 뿌리와 강한 민족적 의식, 유교적 가치관의 생활화 등으로 인하여 동질성의 기반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질성의 잔존은 통일문화 형성의 자원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의 활용이 통일문화 형성을 그 자체로 가능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도 않는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둘째,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서구 세계로부터 새롭게 받아들인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적 가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문화적 내용의 공유이기보다 다양성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하여 확일성 내지 동질성의 확보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다양성을 조직화해 낼 의사소통의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실제 상호작용을 할 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생활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기존의 권위주의 문화와 확일성에 바탕을 둔 냉전 문화에서 벗어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와 비교해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에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원주의는 광범한 신념, 사상 또는 태도들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그러한 신념, 사상, 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Gale Stokes, 1991: 17-22). 다원주의는 인

간을 기본적으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신념이나 조직세력이 오랫동안 사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여러 정치적 형태와 과정, 여러 가지 소유형태, 공개적인 토론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는 데 관심을 갖는다(윤덕희, 1994: 30). 또한 민주주의적 성격은 안정성, 관용성, 개방성, 자발성 내지 능동성, 적응성, 협동성, 다원성, 평등주의 등을 그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수준은 타인과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의 정도를 말해 준다.

따라서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적 가치는 남북간에 형성된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현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이후에 나타난 우월주의, 냉소주의, 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은 부분적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관용성의 태도를 증진하여야 한다. 관용의 정신은 인간관계의 모든 차원에서 발휘되어야 할 덕목이며, 민주주의의 운영에 필수적인 가치관 내지 심리적 태도이다. 관용성이란 자기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의 주장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기의 의견을 그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뜻한다(어수영 외, 1996: 89).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은 50여년 이상을 이념과 체제 그리고 사회문화체계를 달리하여 살아 온 남과 북이 새로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의 보다 높은 수준의 관용성이 요구되며, 특히 남북한 상호간의 문화, 가치, 생활규범, 생활양식 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서는 관용성의 가치와 태도가 크게 증진되어야 한다.

2)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분야와의 연계 속에서 추진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사회문화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공동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그들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모색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동의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공통적 문화기반, 공통의 가치지향, 공통의 생활방식, 상호의존관계, 커뮤니케이션 망의 공유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현승일, 1992: 6). 물질·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의 접촉은 두 사회 모두가 상호간 사회문화적 차별성과 유사성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점차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차등을 두고 교류·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의 근거를 상호 확인함으로써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상호접촉을 통한 불신해소와 유대강화로 어느 정도의 통일문화 형성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이념적·감정적 대립을 완화시킴으로써 정치분야를 포함한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3) 역사인식 및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공통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의 하위 구조로 작용하였던 몇 가지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한민족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는 장기간의 변용과 적응을 통하여 변화 가능하다는 문화변용론자들의 주장³⁹⁾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윤덕희 · 김도태, 1992: 7-8). 즉, 상이한 체제의 이질성에서 출발한 남북한의 사회문화구조는 외연에서는 많은 이질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연의 세계에서는 동질성의 뿌리가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역사인식, 전통문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은 위의 영역에 대하여 공교육 및 생활세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규범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다. 물론 남북한 체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사실과 내용의 가치 정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총체적인 사실관계는 한민족에게 형성된 공통의 사회문화적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통일문화 형성은 역사인식 및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에 바탕한 통일문화 형성과정은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 회복과 전통문화의 재발견을 통한 전향적인 발전, 전통문화의 정치적 이용 배제, 그리고 전통문화 중 탈이념적인 문화 요소를 찾아내어 공통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9)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진화론적 견해는 사회문화체계의 유기체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체계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균형이론은 사회문화체계에 변동요인이 유입되어 불안정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 그 체계에는 본래의 균형상태로 되돌아 가려는 형질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체계의 변동을 이 형질에 따라 불안정 상태의 반응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의사소통구조의 확립

분단 이후 남북한은 인적 및 사회문화적 교류가 단절된 채 서로 다른 언어 발달과정을 경험함에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 민족의 통일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같은 민족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같은 종족이면서 같은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는 혈통, 문화와 더불어 민족을 성립시키는 필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언어의 의사소통 구조 유지는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하는 방법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매우 심각해져서 이 상태로 통일된다면 언어소통의 장애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의 언어 구조는 상이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한 청소년들은 외래 문화의 유입에 따른 의식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수많은 정보의 접촉을 통하여 외래 언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 청소년들은 폐쇄적·독립적 언어 발달의 영향으로 남한의 청소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언어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왕따'라는 용어는 북한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모서리 주기'로,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 '쓰리'는 '서동무', '쓰리를 당한 사람'은 '바위본당', 그리고 '교도소 출소자'는 '탕생'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송광성 외, 1993: 194). 이는 앞으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단절이 지속될 경우에 동일한 언어 구조의 파괴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가 심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 모두의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5)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남북한의 통일문화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는 역시 남북의 양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통일문화는 시민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임현진·정영철, 1999: 363). 여기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기 독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주요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시민의식은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필요한 가치와 행위양식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관계를 파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바람직한 사회관계의 유형 및 이를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되는 차원 높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또한 통일문화라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공감대에 기반한 가치체계의 정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공감 및 확산이라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전경옥, 1997: 287).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은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내용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두 개의 사회문화가 하나가 되는 과정인 만큼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한다.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내용은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실현 방안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사회의 구성과 민주적 기반의 확대 방안,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합의된 목적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의 통일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 접근 과정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 및 방송과 언론, 그리고 학교와 사회교육기관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진한 상태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청소년들을 깨우치는데 그쳤거나 일부 지역, 그리고 일시적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적인 관심이나 흥미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하는 통일과정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통일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형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할 때는 국가 및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토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통일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서가 된 용어는 청소년들의 ‘통일 무관심’과 ‘반감’ 등이었다. 전 후 제3세대인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통일을 왜 하느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대답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정당성의 해답⁴⁰⁾을 찾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40) 그 동안 통일의 정당성 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점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 이러한 대답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여전히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즉,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기존의 추상적 방법에서만 찾지 말고, 새로운 보편적 논거 또는 구체적인 논거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거나 정책을 청소년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소화하여 홍보하는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1) 대 언론 및 방송 매체의 보도 내용 개선

청소년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용어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부분은 최근 TV나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용어를 언급한다. 비록,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감각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청소년들은 '게이트', '테러'라는 용어와 더불어 북한과 관련해서는 '탈북자', '연변'이라는 용어를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일 분위기 조성 즉, 단기적인 통일문화를 위한 처방은 '통일'과 '북한'이라는 용어를 널리 자주 언론 매체에 등장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에 근거하여, 첫째, 민족적 자존심 회복, 둘째, 동질성 회복, 셋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 넷째, 민족적 역량의 낭비 방지, 다섯째, 국제평화への 기여라는 논거를 들고 있다(제6차 윤리교과서, 통일관련내용 요약).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현실감을 갖지 않는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좀더 보편적 관점에서 '통일은 역사적 발전 법칙으로 볼 때, 필연적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합(離合), 집산(集散)을 반복한다. 즉, 통일과 분열은 역사의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등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TV나 언론매체를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층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언론 및 대중매체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 수단 또는 통일문화 형성의 도구로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접근에서는 딱딱한 홍보성 언론이 용보다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정서(情緒)적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퀴즈프로그램, 연예인이 등장하는 게임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일부 방송 프로그램은 북한관련 시사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고(41), 몇 개의 다큐물(42), 그리고 일부 가정 드라마에서 등장 인물로 탈북자를 묘사하고 있는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미진한 실정이다(이송지혜, 2001)(43). 오히려, 그동안 다루어졌던 방송을 통해 묘사된 북한 사람들은 희화의 대상이거나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실상을 보건대, 대 언론 및 방송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접근 방향의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 언론 정책을 관(官) 주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 및 방송매체의 협조를 얻는 형식을 통한 정책 조율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

41) 방송으로는 ‘북한 리포트’ 등과 언론으로서는 ‘NK리포트’ 등이 있다.

42) 이광조(기독교방송 프로듀서: 방송프로듀서연합회, 기자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통일언론상에서 2000년 대상과 2001년 특별상 수상) 등에 의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문제를 다룬 CBS 연중기획 “희망의 새 천년 하나되어 평화를”과 평화공존의 시대 분단이 낳은 민족의 또 다른 이산인 해외동포문제를 다룬 CBS 해외취재 3부작 “함께 사는 모습” 등의 다큐물 등이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43) 오히려 코메디 프로의 ‘연변 총각’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작 필요한 실제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형성하여 주지 못했다.

재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를 보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기는 어렵다⁴⁴⁾. 그 시간대와 내용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시야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끌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메디 프로의 고정 코너를 좀더 활성화한다든지, 각 종 대담 프로그램이나 시트콤, 드라마 등에 북한 및 통일관련 내용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통일 관련 청소년 행사는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와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짜임새가 부족하고, 다소 천편일률적이다⁴⁵⁾. 초창기의 통일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수준 정도로도 충분하였으나, 이미 피상적 단계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는 피로감만을 줄뿐이다. 이제는 한 단계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통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통일과 북한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고 볼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동시에 그러한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그곳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와 사회, 국가 기관, 각 종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활동일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사실 지금도 상당한 정도의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행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44) 대표적 공영 방송인 KBS의 “북한 리포트”는 저녁 11시 35분부터 12시까지의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고, 고정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는 방송사도 있다.

45) 축제 기간의 전시회, 게시판을 통한 사진전시, 통일 백일장, 북한청소년에게 편지 쓰기, 통일 마라톤 행사, 통일 퀴즈대회, 통일 문화제, 통일캠프 행사, 통일 마당극, 통일 음악회, 청소년 통일 페스티벌, 통일영상 한마당 등.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는 피상적이고 흥미가 없다. 분위기 조성 단계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는 소수 청소년들만을 끌어안더라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과 관련된 어느 정책을 보아도 전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은 전무한 상태다. 통일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가의 연계를 통해서 그러한 전문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구성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로 프로그램 내용에 남북 청소년들간의 미팅, 남북 청소년이 함께 하는 퀴즈탐험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접촉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강구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데는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현실성과 구체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브란트 정권 시절 '동방 정책'을 입안했던 '에곤 바르'는 통독 과정에서의 경험담을 통하여 통일을 위해서는 '접촉을 통한 변화 유도'가 최선의 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형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접촉 방법이 최선의 길임은 자명하다.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접촉에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접촉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이 서방세계와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의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⁴⁶⁾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교류와 접촉을 위한 많은 시도와 정비, 그리고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회담의 한 주제'로 '청소년 교류'를 우선 순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고 비전향 사상범의 교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교류 추진은 어느 것 못지 않게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이러한 통일문화의 형성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서두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서적 갈등을 사전에 융합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상태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부, 2001). 우리나라의 남북교류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1 제정 공포)에 의해서 추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92)가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8년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이후 제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증가되었다(통일부, 2001).

청소년분야는 이러한 교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상태로 답보 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의 통일 주역인 청소년들을 무제한적으로 교류하게 하여 생각과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일부 대학들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상호간의 교류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비합법적인 것들은 합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교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금강산 수학여행', '백

46) 홍순영 장관의 제2차 통일교육 실무 협의회 발언록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북한은 13개국과 정식 교류가 이루어 졌고, 많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진출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산 기행'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실천에 많은 장애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 우리가 좀 더 진전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권장 장치가 필요하고, 교류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교류 활성화 촉진 특례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인솔자의 책임 하에 방북 또는 방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매 결연을 통한 상호 방문, 홈스테이 제도의 활용, 육로를 통한 수학여행 및 졸업여행 시행, 각종 학술 탐사활동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사이버를 통한 통일 네트워크 구축

오프 라인(off-line)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한 부분이라면, 사이버 영역(on-line)은 또 하나의 공간이다. 더구나, 최근의 청소년들은 오프 라인의 세계보다는 사이버 세계에 침잠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바로 사이버 통일문화의 형성을 위한 접근 노력이다.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관련 통일 자료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일부의 청소년 관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 통일문화 형성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 줌으로써, 자료와 정보를 편차 없이 공유할 수 있다

현실공간(off-line)상에서의 자원공유와 연대활동은 여의치 않은 점이 많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제한된 사람들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달은 비용과 속도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정보공유의 범위는 무한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관련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통일에 관한 의식 형성에 있어서 현실 세계보다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은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보다는 사이버 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즐기고, 현실 세계에서 게임보다는 사이버 상에서의 게임에 몰두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이버 세계를 통일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한 게임 개발(예를 들어, 두더지를 이용한 북한 지리 탐사 게임, 남북 연합군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한 점령 게임), 사이버 통일 표어·포스터 대회, 사이버 북한 답사 등의 게임 개발과 행사 개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일 네트워크의 구축은 두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 퍼져 있는 각종 자료를 링크(link)화 하고, 공동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 공동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 쪽의 자료가 훨씬 많이 올려질 것이나, 그것 자체가 남북 공동의 청소년 공간을 만들고 개방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접근 방안이 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이 메일(e-mail) 서비스가 시범

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보도⁴⁷⁾가 있었다. 현재 북한의 4대 웹사이트가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⁴⁸⁾. 그렇지만, 북한이 현재의 추세대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홈페이지를 통한 동호회 활동은 대단히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호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공유감정을 형성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이버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지원센터 구축’, ‘통일관련 공동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통일포럼 구축’, ‘메일링 리스트 구축’ 등이 우선 정책적으로 검토·시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

청소년들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단계의 통일교육이 기존의 교육 방법과 내용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로 구안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로 북한의 이해를 위주로 하는 1 단계적인 교육이었다면, 청소년들의 동질성을 증진하고 통일문화 정착을

47) 문화일보 2001. 11. 1일자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2001년 10월 8일부터 시험 서비스를 개시한 ‘실리은행(<http://www.silibank.com>)’은 외국인들이 북한 현지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초의 인터넷 사이트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에 의하면, 아직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 우리 국민이 가입을 하려는 경우는 ‘접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논평하고 있다(통일부 대변인실 논평, 2001. 11. 1일자).

48) 북한의 4대 웹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 조선신보(www.korea-mp.co.jp),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 평양타임즈(times.dprkorea.com)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평양정보센터(PIC) 싱가포르지사(<http://www.pic-international.com>)가 있다.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교육 범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전 과목으로 통일교육 확대

현재의 통일교육 체제 하에서는 사업성 통일교육 위주로 청소년들을 유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교육 과정을 통한 통일교육은 도덕, 윤리, 일반사회와 같이 소수의 일부 과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모든 과목들이 북한·통일 관련 내용들을 싣고 있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서 문화 이해적 접근을 피하는 수준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있기⁴⁹⁾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변화로는 너무도 미진하다. 교과목의 특성상 불가능한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상당 시간의 수업 분량에 해당되는 북한·통일 관련 내용이 등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의 문제는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흥미를 끄는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통일교육, 인간 존중과 동포애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교육의 장(場)도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 학교와 가정이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49) 예를 들어, 제7차 도덕 교과서 10학년용(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은 사회 문화적 접근을 따르고 있으나, 시 수나 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으로의 전환

그동안 통일교육의 주요한 교육적 목표였던 ‘민족 동질성 회복’은 그 준거가 우리사회 중심이거나 복고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일문화 형성과정에서 남북을 묶어주는 중요한 공감대는 ‘민족적 정체성’에서 찾아야 한다. ‘민족적 정체성’은 ‘갈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민족적 공감대’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방향을 의미한다. 예컨대 민족놀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민족적 정체성’ 창출을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족 주체의식의 형성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사대주의적 의식을 벗어나 민족 주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이 주체로서 지니고 있는 자신의 것을 발전시켜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민족 주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들이 연구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서구사회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화 교육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2) 민족 정체성을 살리는 청소년 문화의 발굴 육성·지원

청소년 문화가 청소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아직 서구 추종적 청소년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족 정체성을 갖는 청소년 문화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탈춤, 풍물, 우리문화 탐구 등). 청소년 문화정책에서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 청소년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여 청소년 문화를 ‘정체성’ 있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려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민족 정체성'을 가진 북한 문화의 소개 및 분류

북의 문화는 민족적 요소들이 강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요소들을 가진 북의 문화를 남한 사회에 소개하고, 남쪽과 북쪽의 '민족 정체성'을 지닌 문화들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의 교류는 상호 공감대가 크고, 서로의 '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긍정적이며, 성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을 통일 주역으로 하는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 학교 통일교육 정책에 따른 통일교육 지원 외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플랜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통일 교육 지원법」(1999. 8 발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후에, 사회 통일교육과 학교 통일교육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 외의 각 종 통일 관련 정책은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일 관련 정책들이 현시적이고 단기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며, 인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 행동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에곤 바르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시기는 2020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소년이 바로 통일 시대의 실질적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 통일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체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북한·통일관련 전문 청소년단체 육성

현재 통일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공교육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의 학교교육 구조상 한계가 많다. 아일랜드 등 외국 분쟁지역의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이 학교 밖 사회단체에서 시작하여 뿌리내린 후 학교교육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 종교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차원에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의 폭과 내용을 넓혀 나가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면 그 의의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단체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통해 그런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북한·통일관련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런 교육의 확산을 시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각 종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청소년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통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시행한다면 통일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북한·통일관련 전문 청소년 단체가 부재한 바, 이런 청소년 단체를 만들고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합리적 북한관·남북관계관 정립을 위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우리 사회는 아직 북한 사회에 대한 편견과 일방적 이해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편견과 일방적 이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식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통일문화 형성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 이해하기 교육

북한 사회에 대한 우리식 해석과 판단은 북한 사회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동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사회를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데, 이런 교육은 자기중심적인 타자 이해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이해 인식구조를 바꾸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관점에서의 북한사회 인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내용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흔히 북한 이해 교육자료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문화 형성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반감되고 있다.

2) 남북 관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의 이해 교육

북한 사회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중요한 우리의 인식 구조는 남북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행위인데도 북이 한 것과 남이 한 것에 대한 가치 재단이 흔히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극복도 합리적인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사회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 즉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 교육이 필요하다.

3) 북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남북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이해 교육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하는 것과 남북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의 정서적, 문화적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주된 내용 요소는 북한의 생활문화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 요소에 대한 발굴과 교육 자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VI. 결 론

VI.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문화 형성을 통한 통일문제 접근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등과 같이 많은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반구축 작업이었으며, 이러한 조치들의 핵심에는 언제나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법·제도적 장치가 갖는 의미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 내포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물론, 남북간의 접촉 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및 정부차원의 각종 관련 법·제도적 구비와 함께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단절된 두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공통의 의식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류·협력과 같은 접근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교류·협력과 같은 접근 방법은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있다. 즉, 두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만나기를 희망하거나 만나더라도 적대적 의식보다는 서로에 대한 우호적·관용적 태도가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적대감 해소와 어느 정도의 이해 없이 무작정 만났을 경우에 더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전향적인 통일 교육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 차원의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진단한 토대 위에서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그 성과는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그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거나 아예 통일회의론 등과 같이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통일이라는 과제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두 사회의 구성원들인 청소년들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북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책은 반드시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통일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부터라도 적극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두 사회를 연결시키는 교류·협력과 같은 실천 전략이 보다 높은 파급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북한’, ‘통일’이라는 용어가 친숙해지도록 내적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 문제가 거대 담론차원에서 전개되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일부 계층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려운 담론 형태로 전개된다면 청소년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는 ‘통일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보다 넓은 참여층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 수준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계층만의 노력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금강산 관광’, ‘남북경협’, ‘이산가족상봉’, ‘예술단 교환방문’ 등과 같은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적·사업적 성격의 성과가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은 선부론 예측에 불과하다. 그러한 성과들은 당장에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지속적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을 때에는 곧 잊혀지는 역사의 사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노력은 통일문제가 특수한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는 획기

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종의 법·제도적 구비와 더불어 교류·협력과 같은 제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제는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통일상황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지원’ 사업은 남북한 주민간에 실질적 접촉은 없으나, 이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통일문화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고, 관련 지식을 별도로 습득해야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일반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정보·지식사회의 선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점점 더 딱딱하고 난해한 문제들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현재와 같이 특별한 문제로 인식될 경우에 그것은 성인들만의 점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세대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통일관은 북한과 그 사회구성원들을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국가의 구성원들로 치부해 버릴 위험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통일문제가 국가, 정부, 정책, 성인과 같은 영역에서만 존재했던 것을 인터넷, 게임, 대중매체, 교과과서(음악, 역사, 미술 등) 등으로 확대되는 통일문화 차원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들을 막연하게 통일의 주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세대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통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국가 한민족간의 정치적 통합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 주지는 못한다. 1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동·서독의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수많은 갈등을 안고있다. 한 사회내의 또 다른 사회문제화

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통일교육이 점차 가정,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교육 대상이 주로 학생청소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이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문화 형성은 단기적 성과와 선전적 효과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미래지향적 역동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국제정보연구원(1999). 북한정보총람 2000. 서울: 국제정보연구원.
- 권이종(2000).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청소년 의식조사. 한국청소년학회,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방안.
- 길은배(1999). NGOs의 역할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2001).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 혁(1997).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안적 이론체계의 모색: 인식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김계동(1996). 남북한 체제통합: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제36집 제2호
- 박명윤(1996). 21세기를 향한 한국청소년정책. 한국교육학회 교육사회학연구회, 2000년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박성희 외(1993).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박성희(1995). 북한 청소년의 생활. 서울: 공보처.
- 북한연구소 편(1983).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 서동익(1995). 인민이 사는 모습 1권. 서울: 자료원.
- 송광성 외(1993). 북한 청소년 생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신호숙(2001).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
- 어수영 외(1996).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 연합뉴스(2000). 2001 북한연감. 서울: 연합통신사.

- 윤덕희(1994).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 윤덕희·김도태(1992).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사회·문화 적 동질성 증대 방안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윤성이(2001). 인터넷을 이용한 통일 기반 확충 방안, 통일부 신진 연구자 논문.
- 이상우(1993). 남북한 정치통합: 전망과 과제. 국제문제.
- 이송지혜(2001). TV속의 탈북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방인, 통일 한국 10월호.
- 이영미(2000). 남북 문화교류의 함정. 문화연대.
- 이종석(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학울 아카데미.
- 임현진·정영철(1999).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전경옥(1997). 통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바람직한 통일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전효관(2000). 남북문제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3집.
- 조영송(2000).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 방안.
- 조혜정·김수행(2000). 반공·반제 규율사회의 문화, 권력: 한 남한 지식인의 탈북지식인을 향한 말걸기.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 좋은 벗들(2000).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 통일부(2001).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 실무 안내.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북한청소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함병수·길은배·외(2000).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현승일(1992).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통합과제와 방안. 동북아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북한문헌>

- 김일성(1981a).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1b).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2a).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2b).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임무. 김일성저작집 제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3a). “교원들을 혁명화하며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3b).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3c).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교양의 몇가지 문제. 김일성저작집 제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5).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6a).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자. 김일성저작집 제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6b).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0). 소년단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자. 김일성저작집 제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0).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 김일성 저작집 제36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6). 청년들은 당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87).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신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_____(1992a). 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2b). 주체문화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2c).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6).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7a).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7b).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자. 김정일선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7c).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김정일선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8a).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8b).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98b).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 김

- 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2000).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2000).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2000).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류만(1991).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 1호.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1970).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편(1970).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197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윤기덕.(1991).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 한중모.(1987). 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외국문헌>

- Appelbaum, Richard(1990). *Theories of Social Change*. 김지화 역, 사회변동의 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Blau, Peter M., and Scott, W. Richard(1962). *Formal Organiz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Chandler Publishing Co.,
- Bock, P. G(1968). *International Integration: Func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David Shills ed. New York: Macmillan.
- Choue, Chung-Won(1985). *The Integration of Korea: Theory and Research*. Seoul: Koreaone Press.
- Claude, Inis L(1964). *Swords into Plowshares: The Problems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3th ed. New York: Random House.

Collins, Randall(1985). *Three Sociological Traditions*. N. Y. : Stanford Univ. Press.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1995). *Our Global Neighbour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ye, Joseph S.(1968).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2.

부 록

부
록

[부 록]

탈북청소년 인터뷰(예시)

등 장 인 물
A : 면담자(연구원)
B : 탈북청소년(남자)
C : 탈북청소년(여자)

A : 다음은 북한 청소년들이 우리 남한의 어떤 문화라던가 또 남한에 대한 정보라던가 또는 서구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 접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또 현재 (남한이나 서구문화) 접함으로써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B :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은데요. 제약두 있구요.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다 불법이죠. 외국...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국(음악, 가요) 테이프를 통해서 한국 노래를 듣는다던가. 그 다음에 뭐... 몰래 중국 TV를 본다던가... 몰래 한국 라디오 듣는다던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서구문화인지, 남한 문화인지, 알지 못하고 듣고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 행태가 불분명하고...

A : 그럼 C는 어떻게 있을까? 생활용품 같은거...

C : 그전에는 그런거 몰랐는데요... 어... 개인 집에 오락하는.. 게임기 그런게 있어요.

A : 아... 북한에 그런게 있다고?

C : 오락기계가 있어요. 개인 집에... 그래서 그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거 처음보고..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 집에서 게임을 해요. 청소년들이 다 즐겨요. 그 오락을요...

A : 그런 청소년들이 많나?

C : 아... 예.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주 많지도 않고...

A : 도시에서도 게임을 즐기는지

C : 도시 지방에는 좀 많이...

A : 그건 기본적으로 가정에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에 게임이나 오락 Program이 있다는 얘기네?

C : 컴퓨터는 없어요. 컴퓨터는 없고...

A : 그럼 오락게임기를 통해서 한다고?

C : 게임기... 게임기구만 있거든요. 오락기구...

그리고 또 있었던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디오... 여기서(남한에서) 비디오 보는거 있잖아요. 그 비디오를 몰래 시청하는 것도 있어요.

A : 그럼 비디오가 있다는 얘기네? 가정에...

C : 예... 그게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연계가 있는 가정... 외국에 갔다왔던지 외국에 친척이 있다던지... 그렇게 연계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걸 보는 게 있어요.

A : 그럼 주로 어떤 영화를 보지? 뭐.. 만화영화를 보나? 아니면 뭐...

C : 만화영화도 많이 보고 액션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봐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도 보고...

A : 그럼 애로물 같은 것도 보나?

C : 애로물....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은 못 봤는데 말하는 거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A : B는? 뭐.. 어떻게 있을까?

B : 음... 문화라고 하면... 문화는 앞선 애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 패션문화라던가. 놀이문화를 주도 하는게 그 귀국자. 일명 귀국자라고 부르는 북송동포들. 그 자녀들... 내지는 외국에서 살다온 애들... 그런 애들쪽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옷

입는 그런 것에 따라서 패션문화도 막 바뀌어요. 여기는 스타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스타들의 옷이 유행되고 그러잖아요. 거기 북한 사회에서는 스타가... 우리 나이 또래에 스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없으니까 거기엔... 그런 귀국자들이나 좀 잘사는 애들 옷, 패션이 많이 유행되죠. 어... 그런 유행한다는 그 것 자체가 벌써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비디오 같은 것도 언뜻 보기에 중국에서 공테이프 같은 걸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그런거 내놓고 팔 수는 없고 밀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A : 우리는 청소년들이 TV에 나오는 대중스타들을 추종하는게 굉장히 심한데 북한에서도 혹시 그렇게 있는지?

B : 아.. 거기에서는 스타라고 하면 남한에서는 이렇게 막 열광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그런 차이로 받아들여요. 영화배우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니고... 촬영하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있어도 남한처럼 열광하고 환호하고 추종하고 그런거는 거의 못 본것 같아요.

A : 다음에는 남한사회와 유사하게 북한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뭐... 여자청소년이든 여성들이든... 뭔가 유사한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게 있을까?

C : 음.. 그러니까 북한에선 그전에는 없었던 일인데요... 성형수술이라고 쌍꺼풀 수술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여기두(남한) 쌍꺼풀 수술한다는게... 그때도(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하는거 말로는 들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직접 한걸 봤어요.

A : 그런 사람들이 많나?

C : 아..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예요.

A : 돈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C : 예...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니까....

A : 다음은 북한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문화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있을까?

B : 문화라고 하기엔 좀... 않 좋은... 패가 있어요...

A : 패가 있어요?

B : 예.. 패가 있어요. 조폭... (웃음) 뭐라구 할까...

A : 조직.....!!!

B : 예... 조직... 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패싸움 하고... 술먹고, 같이 놀고.... 같이 놀때는 술먹고... 뭐 술 문화는 여기와 대충 비슷하겠네요.

A : 그러니까 북한 청소년들도 술·담배를 한다는 얘기네?

B : 그럼요...

A : 술 마시는 시기는?

B : 어... 좀 늦는 애들은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하구요. 좀 빠른 애들은 뭐.. 국민학교 4학년 비슷한 중학교 1.2학년(북한 중등학교) 때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A : 그럼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술·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이 비율적으로 많은가? 적은가?

B : 어.. 비율이... 그게 제가 말하는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게 농촌 지역은 그 비율이 적고, 도시 지역은 많고.... '청진'(지명) 같은 데는 거의 학급에서 70~80% 정도가 술마셔요.

A : 문제는 그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지?

B : 북한도 학교(근처)에서 담배를 팔아요. 팔긴 하는데 옛날에 보면 경찰에 들어갔다가 다시나와서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생들 수준에 맞게 확으로 파는게 아니라 댕수로 팔아요.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술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조그만 구석에.... 애들이 술먹는 애들이.... 거기에는 술이 불법이거든요... 만약에 들키면 그거 다 압수 들어가요. 그래서 숨어서 팔고....

- A : 다음엔 여자 청소년들 중심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C : 여학생들 경우에는 미신을 많이 믿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손금을 보거든요. 손금 보면서 뭐... 손금보면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느니... 명이 길다느니... 뭐... 어떤 사람(남자) 만나고... 그런거.... 뭐 그런 손금 보거든요. 그리고 띠를 따지면서 무슨 띠는 좋고, 어떤 사람 만나게 좋다.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 A : 화장은 많이 안해? 화장 같은거...
- C : 화장은요... 화장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 A : 화장은 또 그렇고.... 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옷 패션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 C : 학생들이요... 교복보다는 이쁜걸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쁜거... 핀(머리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짝반짝하는거 있거든요. 그런거 많이 쓰구요. 옷도 교복을 많이 안입고, 교복보다는 사회에서 처녀들... 아가씨들이 입는 그런 이쁜 옷들을 많이 찾거든요.
- A : 그럼 학교 갈 때 교복 안입고 사복입고 간다는 얘기네?
- C : 예... 사복도 요즘엔 많이 입어요. 학교에서는 교복입으라고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많이 들어요. 교복 안입는다구요. 교복 안 입는다구 통제도 많이 하구요. 머리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단발머리로 하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를 매고 싶어하고 머리에 이쁘게 리본도 달고 싶어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단발머리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단발머리를 싫어해요. 머리를 길러서 이쁘게 하고 싶어해요. 그런게 있어요.
- A : 그리고 지금 우리(남한) 청소년들 보면 이성교제를 상당히 많이 한다구.... 북한에서도 학생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 사귀고 하는지?
- B : 북한도 그게... 어... 이성에 대한 건 옛날에는 좀 많이 늦는데.... 요즘 애들은 눈이 깨가지구요(떠가지고요) 많이들.... 이성관계가 빈번해요.
- B : 같은 시골인데도 당국에서 이렇게 말하고 규제를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소문이 짹 나고... 그런데도 사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일도 발생하고.... 학교 내에서 임신도 하고...

A : 그런 경우도 있어?

B : 예...

B : 그런데 끝끝내 이성교제는 많이 하거든요. 북한은 이제 남자들이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거친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들. 딱 잡아서 막 말 걸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사귀자고 해서 하는게... 그런게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A : 북한 청소년들의 놀이는 어떻게 있을까? 어떤 놀이를 많이 하지?

B : 놀이라고 하면 여기는 '게임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북한에는 그런거는 없고 놀 수 있다는게 애들이 많을 때 축구공을 하나 얻어 가지고 축구를 하고 아니면... 카드놀이 있잖아요.

A : 카드? 화투놀이 말하는 건가? 아니면...

B : 화투나 포카하고는 조금 다른 카드놀이라고 있어요. '투페'라고 하는데 '투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장기 두는 애들도 있구요. 어... 투페를 많이 해요. '투페'를 해서 돈 따기도 하고... 투페해서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그렇게 하는게 많아요.

C : 놀이란게 별로 없구요. 특별한게 없어요. 놀만한 장소가 없어요. 거기엔...

A : 고무줄 같은거...

C : 예... 여자친구들은 줄 놀이를 많이 해요. 그거하고.... 땅에다 무슨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서로 잡고 그러는... 술래잡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놀고 그러거든요. 특별한 건 없어요.

A : 다음은 학교 생활이 궁금한데... 아침에 몇 시에 등교해서 오후 몇 시에 끝나고... 학교에서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은 지식중심의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사상교육을 더 많이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얘기해보겠니?

- B : 뭐, 그거는 학교생활 일과를 소개하면 될텐데요. 어... 북한에선 학교 수업을 10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전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학교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겨울처럼 특별히 춥거나 그러면 개인별로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장소에 모여 가지고 출석을 부르거든요. 그때 어느 장소에서 7시 30분쯤에 모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모이는 장소... 거기에 모여 가지고 줄서서 노래부르면서 학교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서 그 북한엔 학급마다 차장부위원장이란 직책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아침에 복습을 시키거든요. 김일성 혁명활동 같은 과목들을 복습을 해요. 읽어줘요. 읽어주면 애들이 그걸 듣는 시간을 갖구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뭐 특별히... 거기서는 들어오면 뭐.. '아프칸' 그런 애기도 많이 할꺼예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사상교육만 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자기과목에 충실해요. 자기과목을 열심히 배울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도 많이 해주시고요.... 숙제도 많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달라진 면이 있다면요... 옛날엔 학생들 가정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업에.. 애들한테 공부자리키는 것에 몰두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도 영양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루종일 말씀하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과제만 내주시고.... 선생님들은 앉아서 쉬시던가... 아니면 자긴 나가서 불일보고....
- A : 만약에 우리 중학교 3학년과 북한에 그 3학년에 해당되는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나... 그 학력수준을 비교할 때.. 그 내용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할까? 차이가 날까? 뭐.. 수학과목 같은거
- B :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남한의 고등학교 1학년)... 등학교 1학년때 수학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수학을 제가 중학교 4학년때(북한의 중등학교 4학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과정은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자연과학 부분에서의 수업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면 그쪽은 공부도 어렵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교사 같은 경우에는...(거의 없어요). 화학교사는 거의 1명도 없었어요. 화학은 전 배운게 없고... 물리도 진도가 나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할게 없구요. 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A : 우리는 영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영어를 비롯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도 중요하게 인정이 되는 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이 있을까?

C : 북한에서도 역시 영어, 한문, 그다음에 수학, 물리, 화학, ... 하고 있죠. 그런거.... 거기서는 거의 많은 학교에서 혁명활동이라던가, 혁명역사... 이런거... 혁명역사 그런게 중요시되죠.

A : 북한에도 아마 대학입학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 있고 그걸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지.. 거기는?

B : 거기에도 시험... 대학 가는 시험이 있거든요. 어... 구역에서 시험 두 번보고... 그 다음에 해당대학에서 시험 한번씩 봐서... 여기는 자유경쟁이잖아요. 자기 성분이나 환경이나 아무 상관없이 시험 봐서 성적이 우수하면 대학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예요. 남자는 무조건 군대 가야하고... 또 특별히 성분이 나쁜 아이들은 대학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남한처럼 입시경쟁이 너무 심하게 가지고 고3 병..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구요. 요즘에 대학에 붙었거나 말거나... 대학 간다는게.... 옛날엔 대학가야 출세한다고 뭐 그런걸 많이 따졌는데...(요즘엔 안그래요) 그래서 난 대학가는 거에 별로 치중을 안했어요.

A : 그러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출세한다거나 성공할 수 있는 다른길이 있는 모양이네?

- B :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출세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당원가족.... 그 당원이라는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원이라는 것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대갔다 와야해요. 그 당원이란 자격을 군대갔다가 따면 대부분 제대군인들이 이렇게 대학입학증을 받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출세 가능성은 무엇이나.. 그냥 학교 때 대학 간 애들은 공부 잘해 봤자 연구사. 연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뭐...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은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 A :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직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뭐 이런 직종들이 우선순위로 드는데 북한에서는 어떠한 직종이 인기가 있는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 C :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뭐... 의사... 교수... 이런 직종이...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답에 의사나... 의사 같은 경우에도 직업이 꽤 좋거든요. 그 답에 주로 나온 직업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작업관리장' 공장의 '작업관리장' 이라던가... 가스공장의 '작업반장' '지배인' '책임비서'... 뭐. 이런 직업들이 선호되고 있거든요.
- A : B는 직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 B : 직업우선 순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쓸만한 직업... 외교관이 라던가... 그답에 무역선 타는 선원... 그 다음에 기자라던가... 뭐. 그런 직종이 좋죠. 희망직종이죠.
- A : 아...(그렇구나) 자. 다음에는 북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이 궁금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우선 학교가 끝나는 대로 학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시간이 있거나 또는 주말이면 TV를 본다던가 또 뭐.. 인터넷을 한다던가. 채팅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자기 나름대로의 여가생활이 있다구... 근데 북한 청소년들은 주로 주말이나 방과후에는 뭐하고 보내지?

B : 어.. 방과후에 하는거 라면 그냥. 일요일은 분명히 쉬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두 일요일은 쉬지 못하고...

A : 아. 그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노력동원을 시키는가 보지?

B :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컴퓨터나 오락기구 그런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북한은 전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석 달씩 전기를 안 줄 때도 있고... 그냥 밤에 집에 들어와서 뭇뭇뭇 앉아 있다가 그냥 자요. 그냥 가끔씩 여가가 나면 애들끼리 모여서 낚시한다던가... 여름에는 강에가서 수영하던가... 강에 나가서 고기 잡는 그물 바느질 한다던가.... 애들끼리 동물원 놀러간다던가... 뭐.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축구를 한다던가... 어.. 그런 것들을 여가시간에 많이 해요.

A : 여자 청소년들은 주로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지?

C : 어... 저는... 제가 자란 곳이 '청진시'가 아니고 황해도 외딴곳이기 때문에 그 여가 시간이... 노는 시간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놀지를 못해요. 농촌이니까 다 휴식일이라 해도.... 휴식을 별로 못하지만... 보통 휴식일이라 해도 보통 집에서 일손 도와요. 부모들 일손 돕고... 그렇게 놀지 못해요.

A :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외로 인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구... 북한도 그런 대입시 때문에 과외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있는지? 또 많이 하는지?

B : 아... 북한에는 그런 과외 같은거... '과외'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애들이 방과 후에 특별히 따로 공부하는게 있다면 특별히 이렇게 '과학소조' '수학소조'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그때만 운영하는 거구요. 상급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 명씩 도와줘 가지고 그런 클럽을 운영해요. 그런 클럽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사교육비라 해가지고

따로 지출되는 돈은 없구요.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근로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학부형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 좀 잘 봐 달라구 쌀도 갖다주고... 부침개도 갖다주고... 애들 공부하는데 먹을 것도 갖다주고... 뭐, 그런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요하는 것은 아니구요. 근데, 북한이 워낙 먹고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음악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미술분야를 교육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애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잘사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 악기가 비싸기 때문에 그 악기를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보통 생활 수준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의 많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 애들은 못하죠.

A : 우리 청소년들 보면 방학 때라던가 아니면 방과 후에 패스트푸드점 같은데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북한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B : 있죠... 그.. 아르바이트라는게 북한 청소년들은 일 못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이렇게 개인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돈 벌려면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장사 하나면 고품(골동품..) 장사를 해요. 개성에서는 이렇게 옛날 구석기(유물) 나오잖아요. 그런거를 도굴해 가지고 가져 가서 싼값에 팔아버리고.... 함경도 '해산' (?) 지역이나 저쪽에... 아니면 중국에서 와서 북한에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서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정부가 아니고 개인...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수집 하는데 그거를 팔면 돈이 좀 늦게 나와요.

A : 우리 청소년들은 간식 같은거 군것질 많이 먹는데 북한 청소년들은 그런거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간식은 많이 하나?

C : 어.. 간식... 군것질 이라는게 돈이 많으면 많이 하는데 생활이 각박하니까 사탕이나 이렇게 캔디... 사탕 같은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옥

수수... 옥수수를 이렇게 불에다 구어 가지구... 옥수수하고 콩하구 그렇게 볶아가지고 간식으로 많이 먹구... 그 담에 사탕과자 그리고 집에서 밀가루음식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먹거든요. 특별한 건 없어요.

A : '다음으로 궁금한게 북한의 가정생활인데... 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뭐. 같이 놀러 가는 것 같은거? 주로 하는 대화는 공부하라는 얘기인지... 기타 등등... 어떤 대화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

B : '북한에서 가정생활이라고 하면 북한에선 가정지도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 오가는 대화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요즘엔.. 요즘 군인들 같은 경우엔 가족한테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은데 아버지는 좀 무조건 무서운 존재... 그런 관계에 있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놀러간다던가... 하여튼 애들이 좀 나이가 들면 애들이 부모랑 같이 어디 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A : 똑같네... 우리랑...

B : 예...

A : 그 밖에 뭐...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라던가... 딸과 아들의 성차이에 의한 가정을 돕는 일들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B : 어... 북한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가부장적이라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절대군주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웃긴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는 오직 밖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집의 일은 어머니가 전부다 그걸... 자식이라고 하면, 아들이면... 북한에서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큰 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아직도 있어 가지고요. 남자들은 부엌일 거의 안하고요. 어... 나무 패다가 그걸 불때거든요. 상자를 갖다가 장작을 만든다거나, 석탄을 집까지 옮겨 논다거나, 물을 길어온다거나. 그런일 하고.... 드문드문 하는 일이 있다면 불때주는 일... 남자들.. 아들

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딸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딸들은... 북한에선 세탁기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방거두고(방청소)... 집안의 사소한 모든 일들을 하고 그러죠. 엄마가 주로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애들이 그저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만 갖고 있고 어머니에 대해선 동정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A :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위치가 가부장적이면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체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지?

C : 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체벌 한다는게 저는 크게 못느꼈죠. 그런 거... 또 어떤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 부모들이 욕을 하고 매를 들기도 했어요. 매를 들고, 그래도 이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하는 거지 특별한 체벌을 안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생활형편들이 다 그러니까 부모들을 잘 도와줘요. 항상 부모를 도와서 여자는 여자 할 일...(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없이 계속 일을 하거든요. 남자는 힘든 일을 도맡아하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많으니까요. 여자들이 좀 힘들어요.

A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북한은 대개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거로 알고... 일하는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도 같은데?

B : 어... 북한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여성참여율이 높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성참여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실적으로 군대에서도 여성들이 담당하는 각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어... 생활이 어렵지만 않으면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길 원해요. 남자들이 그걸 바래요. 남자들이 욕심이... 여자는 집에서 밥만하고 살림 잘 하는게 여자의 본분이야... 그게 남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치녀 때는 많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다

가 결혼을 하면 다 집에 들어와서 그냥 가정주부로써의 일을...

A : 아니... 그러면 국가나 당에서는 의무적으로 여성들의 그 사회활동을
강요하지 않나 보지?

B : 어... 강요하죠. 그래서 일찍 시집가는 건 비판대상이 되거든요. 그렇
지만 여자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로써는 여자를 출가시키지 않으면
되게 또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법적
인 보호장치도 없고 그렇다고 경호원을 대기시킬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오래 두어봤자 부모님 근심만 더해가죠. 북한은 결혼연령이
빨라요. 23세~24세 정도가 결혼 적령기구요.

A : 여자들인 경우에...

B : 예... 25세, 26세가 되면 벌써 늦은 걸로... 처녀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모들이 딸 팔고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좀 그런거 있어요. 여성차별화...

A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느 사회나 청소년들은 그 또래관계..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 청소년들은 이점은 어떠한지?

B : 어... 여기는 애들을 좀 깊이 있게 오래 사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애들도 고등학교 계속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 친구를 만나고... 여기는 애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북한은 일단 집이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이
학교 들어가서, 8년 동안 같이 학교 다니고, 대학까지 같이 졸업하고,
같이 군 생활하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정이 1.
2년이 아니고 몇 년 몇 십년 동안 쌓아오는 거라 그 우정이 평
---장히---끈끈하거든요. 애들이 그 친구라고 하면--“죽자살자 친구” 뭐--이
---릴 정도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제일 친한 친구가 군대 친구래요.

A : 어떻게 그렇지?

B : 군대가 같이 지내는 기간이 제일 오래고... 군대는 일생에서 제일 위
험한 시기잖아요. 제일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제일 위험한 일을 같이

겪고 군대라는게 집단생활이니까... 계속적으로 부대끼는 친구니까... 그 친구가 가장 제일 친하게 된대요. 너무 고마운 친구가 된대요. 북한도 지역사회라던가 군대... 어디에 다녀왔냐... 그런걸 따지고 그 래요. 여기는 출신 고등학교를 따지지만 북한은 출신부대를 따지니까... 여기는 학번... 대학 입학한 학년을 따지지만 북한에는 군대 있던 연도 그런걸 따지니까...

A :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보면은 노인들... 부모나 그런 웃어른을 공경하는게 저조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역시 떨어진다고 하는데 북한의 청소년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B : 예전에는 선생님은 지극히 무섭고 국민학교 때까지 만해도 선생님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 지금은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거의 인사해요. 인사하는데 그전처럼 90도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막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는게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스승과 제자간의 도리고 어떤....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뭘 잘못하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이제 그런 선생님들일수록 더 심한데.. 남학생들은 놀리고, 선생님들의 위상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게 옛날에는 국가에서 선생님들의 배급율도 일반사회 기준보다 높고 일반 사회인들보다 배려하는 것들이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깔보구 그런 경우가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선생님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쌀 준다. 돈준다 손 내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들도 그걸 보니까 선생님들이 우습죠. 애들하고의 관계도 달라져요. 애들하고 친구처럼 술도 마시고, 같이 놀아주고, 애들 노는데 끼들어서 놀고.... 그런쪽으로 가면서 또 애들 잡을 때는 잡고... 그런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그냥 원칙대로 하려는 선생님한테는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반항하고....

A :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거는 북한 학교 내에서의 행정체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니?

B : 학생들이... 북한은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게... 사로청에 가입할 수 있는 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사로청 소속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한편으로 학생들이니까 교육부에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일정 학년 이상인 학생들이나 경우에 사로청 소속이면서 동시에 교육부 지시를 받는 이중 소속이 된다는 얘기임) 그래서... 북한에서 매일매일 과제가 떨어지는데 선생님들은 교사 모임에 가서 그러니까 교육부 행정부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전해 주고, 그리고 학급의 분단장들은 사로청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받고...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지시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과제 (작업 할당량) 내주고 사로청에서도 과제 내줘요. 그래서 행정부의 과제에 치중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로청의 과제에 치중될 수도 있는데 그건 학급 반장하고 분단장 능력 여부에 달려 있어요. 분단장이 능력이 있으면 사로청 과제는 잘 수행되는 반면에, 행정부 과제는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학급반장이 분단장보다 우월하면 행정부 과제가 잘 수행되고 사로청 과제가 부실하게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A : 과제가 어떤 거야?

B : 보통 과제라고 하면 뭐... 파지내라. 그담에는 뭐... 노력동원이 있고.... 뭐 그런 과제들이구요. 사로청 과제들은 학생들 몇 명 뽑아서 작업동원 시키고, 그런 과제를 내는데 학급 제적인원이 보통 30명이거든요. 근데... 출석인원은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밖에 출석 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노력동원 있고 또 사로청에서 몇 명 뽑아서 일 시켜라 그렇게 하면 학급 반장하고 분단장하고 싸움 붙는거죠. 그 때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 싸움에 끼지 않고 학급반장이나 분단장이 알아서 보내도록 해요. 그런데 학급이 맡은 작업량이 있어요. 그만큼 일 많이 나가야 일을 쉽게 빨리 끝내고 들어올 수 있는데 분

단장은 또 자기가 맡은 과제 때문에 몇 명을 또 떼어서 사로청으로 보내야 되요. 그러면 이제 막 애들끼리 싸움 붙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급반장하고 분단장 패가 갈라져 있어요. 보통 보면 학급반장이 학급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

A : 그럼 학급반장이나 분단장은 주로 배경이 좋은 청소년들이 맡고 있겠네?

B : 그렇죠... 학급반장이나 분단장은 뭐... 선생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급반장이나 분단장은 좀 잘살고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래야 또 선생님의 역할도 쉬워지니까...

A : 다음은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주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지?

B : 통일이라고 하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북한 청소년들은 100%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통일 되어야하느냐.... 그거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통일되어야)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애들이 있는 대로 말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못하는 생활수준에 대해 얘기하다가 우리 생활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GNP의 80% 이라더라... 그 중의 10%만 돌려도 우리는 잘 먹고 살수 있다더라... 그런 얘길 하면서 그러면.. 통일이 되면 그 돈을 다 돌릴 수 있고(국민들의 생활에 그 돈을 쓸 수 있고).... 또 남한은 잘 산다더라... 남한이 잘살면 통일이 되어서 우리도 잘 살수 있다. 북한에선 자기들 군사력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A : C는?

C : 음... 통일은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헤어진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도 만나고, 여태까지 갈라져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통일해야 잘 살수 있다. 그리

고 통일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이루어야 한다).... 남북한 회담을 계속해도 실현이 안되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꼭 전쟁을 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주장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구요. 진짜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전쟁하면 진짜 몇 초만에 남한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이나 일본은 들어와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민족 한겨레인데 남한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A : 북한 청소년들은 우리 남한 주민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C : 어... 북한에서는 어릴적부터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남한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월사금이 없어서 공부도 못 시키고... 깡통 차고 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배우고 싶어서 학교 갔는데 월사금이 없어서 쫓겨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속아 살았어요. 남한에는... 남조선이라고 했어요. 남조선에는 어린이들이 항상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지 못해 너무 불쌍하다. 우리는 무료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남한은 너무 불쌍하다. 근데 크면서 보니까 남한이 못사는게 아니고. 잘사는 거예요. 웃기게 됐어요. 어찌되었든 거기 사람들(북한주민들)은 한민족 한겨레라고 생각하면서(남한 주민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빨리 통일되어서 같이 만나서 열싸안고 기뻐 해야 할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A : B는?

B : 북한에선 남한을 생각하기론 미국이 준 돈으로 밀가루 사고... 남한은 미국을 추종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아니었을까...(미국이 시켜서 한 것 이라는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돈은 없고 그냥 미국

이 먹을걸 다 주고...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잘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북한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깡통차고 먹을거 구걸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크면서는 일본만큼 잘 산다더라.... 일본하고 한국하고 양쪽이 거의 비슷하다더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 남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라디오 라던지... 조금씩.... 남한방송 듣는 사람들이 몰래 듣고 그런 걸 소문을 내요. 잠수함 내려간 것...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남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남한에 대해 직접 볼 수 있는 건 TV에서 데모할 때.... 남한측에서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악독하게 하는지... 남한 사람들은 전부다 한총련인가보다... (웃음...) 그렇지만 TV화면에 나오는 배경 장면들을 보면서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은 북한 주민들도 그런 것이 소문나서 다 알고 있어요.